사단법인 전국신문협회 The Association of National Newspaper

대전투데이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3125호 2019년 9월 2일 월요일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토지계약 왜 미뤄졌나?

KPIH "법률자문 필요해 9월 11일로 연기"… 일각 "사업 차질 우려" 제기

▲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맡은 (주)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토지매매계약 체결일을 8월말에서 9월11일로 연기했다.

일각에서는 토지대금 납부가 또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각종 소문이 난무하고 있고,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상가 선점을 위해 KB신탁 계좌로 입금을 했다는 투자자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불법 선분양'의 혹으로 유성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KPIH는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8월 중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KPIH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성복합터미널 사업과관련해 2019년 8월말까지 대전도시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려 했으나 계약절차 이행과 법률자문이 필요해 9월 11일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납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PIH는 "당초엔 8월말 계약과 동시에 완료하려고 했으나 토지매매계약서 작성에 따른 내용협의 및 수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 체결과 납부를 연기하게 된 것"이라며 "지난 보도자료를 통해 8월말까지 토지매매계약 체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대전시민들에게 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KPIH는 그간 제기되었던 온갖 의혹에 대해서 토지대금 납부 이후에 이를 소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납부 지연등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시민의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주)케이피아이에이치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도시공사 역시 KPIH와 토지매매계약에 관련한 실무협의와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주)케이피아이에이치 간에 용지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와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양사는 용지매매 계약과 관련한 실무협의 및 이를 뒷받침할 법률자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주)케이피아이에이치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개발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9월 26일)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KPIH는 2021년 말까지 유성구 구암동 일원 10만2천80㎡ 부지에 복합여객터미널을 비롯해 환승시설(BRT 환승센터,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행복주택, 지원시설 등을 짓는 7천900억원 규모의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을 맡고 있다.

이정복 기자

김성구 대전투데이 사장, 허태정 대전시장과 환담 나눠 김성구<사진 왼쪽>대전투데이 사장은 8월 30일 오전 대전시장 접견실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지난 민선 7기 1년동안 대전 주요 현안사업인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사업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베이스볼드림파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대전을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2019청양고추구기자축제
매콤달콤 최고였다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의 대표 축제인 '2019 청양고추 · 구기자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매운맛애(愛) 빠지다! 청양멋애(愛) 반하다!'를 주제로 청양읍 백세건강공원에서 개최된 축제는 태진아, 미스트롯 입상자 등 인기가수가 대거 출연한 개막식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으며 환상적인 불꽃놀이로 탄성을 자아냈다.

청양군은 이번 축제에서 ▲나만의 고추양념 만들기 ▲고추 탑 쌓기 ▲김치 만들기 체험 ▲물고기 잡기 ▲세계고추 전시관 운영 ▲달집태우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연령별 즐길거리를 제공,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청양고추의 맛을 강조한 '1000원의 행복 고추를 담아라', 농산물 깜짝 경매, 읍면 농·특산물 판매와 시골장터, 작목별 연구회 전시 체험판매 행사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건고추 4200포에 한정해 6kg 1포 구입자에게 1만원권 청양사랑상품권을 제공,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추를 구매했다.

올해 건고추는 행사장에서 일반고추 600g 1만1000원, 명품고추 600g 1만4000원, 매운 청양고추 600g 1만4000원에 거래됐다.

청양군은 올해 GAP인증 및 친환경 건고추를 별도로 준비하는 등 안전 농산물을 최대한 선보임으로써 청정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양고추(지리적표시제 제40호)는 부식질이 많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과 일교차가 큰 기후조건,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로 생산되는 명품이다.

또 청양구기자(지리적표시제 제11호)는 5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저력을 자랑하며 전국 생산량의 67%를 차지한다.

청양=정상범 기자

충남도, 중부발전 · 30개사와 협약

'벙커C유→LNG · LPG' 시설 교체 지원…전국 첫 '청정 연료 전환 사업' 추진

충남도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한국중부발전, 도내 30개 기업과 손잡고 전국 최초로 '청정 연료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양승조 지사는 30일 공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 김민석 일아아스콘 대표 등 30개 기업 대표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 연료 전환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2021년까지 102억 원을 투입해 기업들의 벙커C유 사용 시설을 LNG · LPG 시설로 교체하는 비용과 외부사업 등록비용 등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도내 66개 사업장에서 배출권 할당 대상 6개를 뺀 60개 사업장으로, 이번에는 연료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아스콘, 벽돌, 사료 등 생산 30개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이들 기업은 중부발전으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으로 시설을 교체하고, 이를 통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탄소배출권)은 10년 동안 중부발전에 제공하게 된다.

기업 당 연료 전환 지원금은 6000만 원에서 최고 2억 원(일부 자부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시설 교체에 따른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산정 자료를 제공한다.

도는 이번 30개 기업을 비롯해 벙커C유 사용 탄소배출권 비할당 대상 60개 기업이 연료 전환 사업에 모두 참여할 경우,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53톤에서 49톤으로 80%(204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은 12만 8000톤에서 9만 3000톤으로 27%(3만 5000톤)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사회적 환경 편익 비용은 107억 원으로 계산됐다.

연료 전환 사업은 특히 각 기업들에게 19% 가량의 연료비 절감 효과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업무협약을 맺은 30개 기업의 벙커C유 사용량은 연평균 1만 6537kℓ로, 지난달 말 기준 단가로 120억 3894만 원에 달한다.

같은 규모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 LNG는 1만 4694kℓ, 96억 3907만 원, LPG는 1만 3837톤, 109억 3581만 원이 소요된다.

벙커C유 1메가줄(MJ) 당 비용은 20.13원으로, LNG 16.32원과 LPG 16.52원보다 높다.

연료 전환 사업은 이와 함께 10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사업은 국민 건강권을 한층 향상시키는 동시에 중부발전은 온실가스배출권을 확보하고, 참여 기업은 연료비 절감과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최근 환경부 주관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상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라며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물론, 각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포인트제 참여, LED 조명등 교체, 하이브리드 · 전기차 구매 등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대전시 청춘터전 3곳 신규 오픈

올해 새롭게 지정된 청춘터전 3곳이 최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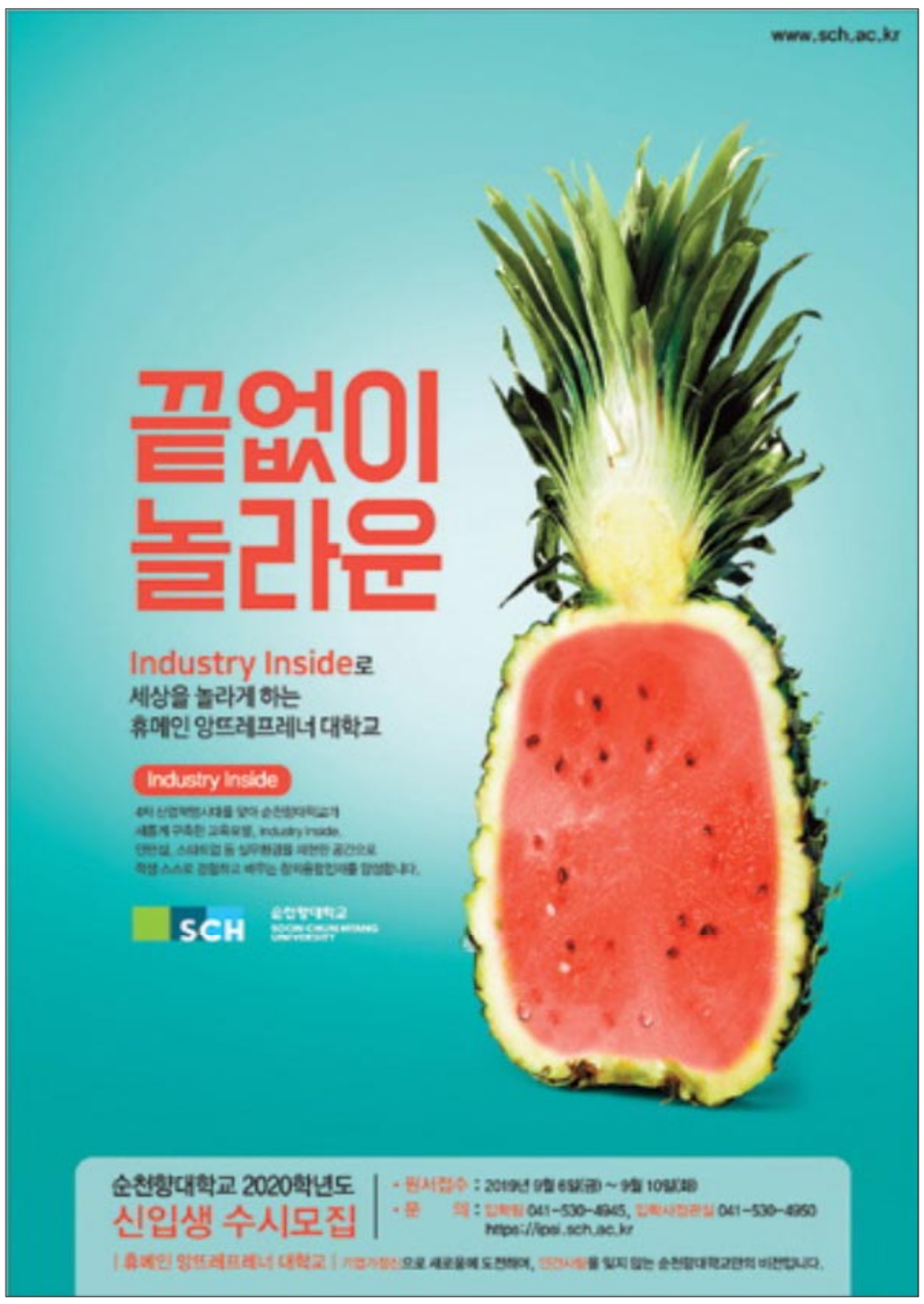
대전시는 올해 지정된 'C.Playground(중구 대흥동)'와 '청춘목공소(대덕구 오정동)' 그리고 '청춘을 담다(동구 소제동)' 등 3곳이 지난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잇달아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청춘터전은 지역거점 청년 활동공간으로 공모를 통해 지정되며, 시는 지난해 3곳을 지정한데 이어서 올해도 3곳을 신규 지정했다.

'C.Playground'는 청년 문화예술 기획 및 교류 공간이고, '청춘목공소'는 목공 관련 체험 및 코워킹 공간이며, '청춘을 담다'는 식음료 관련 청년 창업자(예비) 소통공간이다.

한편, 지난해 지정된 청춘터전은 '새천년카(동구 가양동)', '청년대장간(중구 은행동)', '시간공작소(유성구 신성동)' 등 3곳이다.

김태선 기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막 올라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 시작… 슈퍼예산 · 선거법 '난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고 법안 처리율 최저 수준 국회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기 위한 국정감사도 실시된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아직 정기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해 시작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일 현재 여야는 국회법상 정기국회 시작 전 완료해야 하는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고, 정기국회 일정 역시 잡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3~5일 혹은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가안을 마련해 여야에 전달했으나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 모두 청문정국에 골몰하고 있어 정기국회 일정은 관심 밖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모두 끝나야 일정 논의가 겨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기약 없는 정기국회 초반이 될 전망이다.

올해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는 정부가 오는 3일 제출하는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될 전망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두고 여야는 진작부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충분히 풀어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반드시 원안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예산안 관련 논평에서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이 확장적 ·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나란히 대폭 삭감을 예고해 올 연말 역시 예산안 심사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4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불러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의 운명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개혁안은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패스트트랙 첫 관문을 넘어섰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을 121일로 단축한 선거제 개혁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 자구심사 90일과 본회의 부의, 상정을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 부의 후 바로 상정하면 이 기간은 전부 줄일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오는 11월 27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빈손 종료'돼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법안은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사개특위는 지난 6월 말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했지만, 이후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채 전날인 8월 31일부로 문을 닫았다.

민주당은 애초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렸으니 최종적으로도 야당과 합의해 이들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다.

김정환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제57회 임시회 기간 중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회의를 열고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와 제3차 회의를 통해 수정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은 총 7,901억 9,899만 3천원으로 이는 당초 기정예산 7,902억 47만 9천원보다 148만 6천원이 감액된 규모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시민주권회의 운영' 등 7개 사업에서 2억 7,525만원이 감액된 반면, '모두의 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등 8개 사업에서 1억 5,850만원이 신설되고,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억 1,526만 4천원이 증액됐다.

김연 의원 "명확한 보조금 지원기준 확립 필요"

보조금 정산절차 엄수치 않는 사업 대한 제재조치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보조금 지원 및 집행의 명확한 기준 확립과 정산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객관적 근거에 의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산 기간 등을 엄수하지 못할 때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실적자료 심사 후 결과 확정 및 통보 ·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반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 정산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법적 반납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산과 반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제재와 함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민간보조금의 경우, 사업마다 지원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예산낭비와 선심성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문화행사 및 축제성 사업은 자부담 20%인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많다"며, 그에 비해 "농업 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자부담이 50% 이상인 경우 지원하고 있어 사업 간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단체의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지원, 소모성 기능보강 사업비(에어컨, 컴퓨터 등)는 보조금이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평화가 경제로 이어지고 경제가 평화로 선순환 필요"

문 의장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고위급 참가자 면담

문희상 국회의장은 8월 29일 "'평화가 경제다' 그리고 '경제가 평화다'라는 말은 범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화두"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 독일 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Hatoyama Yukio) 일본 전 총리, 오치르바트푼살마긴(OCHIRBAT Punsalmaagiin) 몽골 초대 대통령 등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다.

문 의장은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한반도는 동북아지역, 나아가 세계적인 번영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하면 남과 북의 자원부터, 유라시아 관문으로서의 물류의 원활한 이동, 시베리아횡단 철도와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경제발전과 번영의 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며, 주변국 모두에게 윈윈(win-win)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면서 "평화에서 경제로 이어지고 경제에서 평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 제1차 총회 및 이사회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제1차 총회 및 이사회가 주승용 국회부의장의 주도로 9월 3일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및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협의회는 아시아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시아의 현역 국회의원이 모여 물 관리에 관련된 각국의 입법과 정책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가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협의회 제1차 총회 · 이사회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10개국 20여명의 아시아 국회의원과 각국의 정부대표단 등 400명이 참여하며, 협의회의 비전과 미션을 선포하고 참가국의 물 관리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의 목표와 활동 방향을 담은 물 행동 선언문을 채택하여,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밝히게 된다.

아울러 협의회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물 관리 협력기구인 아시아 물 위원회(AWC)와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의회가 향후 물 관리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기초를 마련한다. 총회에 앞서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정관을 채택하고 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 등 집행이사를 선출하며 협의회의 기본적인 조직을 구성한다.

협의회의 제1차 총회를 주도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그동안 제7-8차 세계 물포럼, 아시아 물 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 등 다양한 물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입법기구의 참여를 강조해 왔다.

나아가 지난 3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설립준비회의에서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아시아 각국 국회의원들을 만나 아시아 물 문제의 심각성과 대처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부 차원의 해결지원 구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 의원외교를 펼쳐 금번 제1차 총회의 개최를 이끌어 냈다.

국회=김성구기자

대전시 공기관들,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리가 앞장'

대전시 공사, 공단, 출연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의 의지를 다졌다. 대전시는 30일 오전 10시 대전시 인재개발원에서 공사, 공단, 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민선 7기 2년차를 맞아 조직의 효율성과 공공성 증대 등 조직혁신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외부강사 특강과 기관 내부혁신 보고, 결의문 낭독, 시장 당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특강에 나선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혁신방안'을 주제로 현 지방공공기관의 상황 및 향후 혁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어 공사 · 공단 및 출연기관장이 내부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결의문 낭독 시 공공기관의 새로운 혁신 의지를 다지는 구호판을 들어 보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와 지방공공기관은 넓게는 하나의 조직공동체 이므로 항상 협력하고, 내부 혁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에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며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선기자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 강화하는 법안' 발의

조승래 의원, 고위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제도 강화

고위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29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주식백지신탁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제재의 수준을 엄격하게 하고, 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며, 심사위원회에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20대 국회의원 중 지난 2016년부터 주식 백지신탁과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의원은 44명으로 밝혀졌지만, 징계를 받거나 고발당한 국회의원은 '0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많은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의 윤리가 엄격히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자유한국당, 아산 '을' 지역 여성위원회 발대식 가져

자유한국당 아산'을'(위원장 박경귀) 여성위원들이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며 나섰다.

박경귀 자유한국당 아산을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250여명의 시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위원회 발대식과 함께 고문, 자문위원 등 주요 당직자 위촉식을 가졌다.

박 위원장은 지난 5월 고윤경씨를 당협 여성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날 그동안 발굴한 여성위원과 주요 당직자 60여명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산갑 이명수 국회의원과 최근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맡은 천안병 이창수 당협위원장, 전,현직 도의원, 시의원, 기관단체장들과 시민, 당원들이 축하객으로 행사장을 가득 메워 성황을 이뤘다.

여성위원회를 이끌게 된 고윤경 여성위원장은 "여성위원들이 자유한국당의 핵심가치와 사명을 잘 인식하여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랫동안 해 온 봉사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를 위한 더 큰 봉사로 당협위원장을 보좌하여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경귀 당협위원장은 주요 당직자와 여성위원 한명 한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사말에서 "국정파탄으로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경제, 외교 안보를 바로 세울 자유한국당이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하며,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다시 세우자. 이를 위해 여성위원과 주요당직자들이 각자의 사명을 다하자"고 역설했다.

이명수 국회의원도 인사말에서 "아산을 여성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아산갑과 을의 여성위원들이 서로 지혜로 나누며 협력하여 총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국립충청국악원 공주 유치 서명운동 '10만 명' 돌파

문화재 야행에서 10만 번째 서명자 탄생

국립충청국악원 공주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참여자가 목표인 10만 명을 돌파했다.

공주시(시장 김정섭)와 공주 국립충청국악원 유치위원회(위원장 최창석)에 따르면, 지난 30일 공주문화재 야행 관람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및 유치 홍보 활동을 진행하던 중 10만 번째 서명 참여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7개월도 채 안 돼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보령머드축제와 부여서동연꽃축제 등 타 지역 축제는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돌며 광범위한 활동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10만 번째 서명자에게는 꽃다발과 고마공주 인형 그리고 제주도 항공권 2매가 경품으로 지급됐다.

주인공인 황태봉(대전 유성구 지족동, 49세)씨는 "대전에서 가족들과 함께 문화재 야행을 즐기던 차에 국립충청국악원 공주 유치 서명운동에 참여했는데 이런 큰 이벤트에 당첨되어 정말 기쁘다"며, "오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주에 반드시 국악원이 건립되길 간절히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석 유치위원장은 "국립충청악원 공주 유치를 위해 열심히 서명운동 및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멀게만 느껴졌던 10만인 서명자가 나왔다"며 "이는 국악원 유치를 염원하는 공주시민들의 뜨거운 지지 덕분으로 유치위는 앞으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유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시민주권시대 실현하고,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할 터”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7기가 출범한 지난 1년을 되돌아볼때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한 기쁨도 있었지만,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더 많다는 것을 느낀 한 해 였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지난 8월 30일 오전 대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 베이스볼드림파크는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전 현안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시민들의 말씀을 더욱 경청해 시정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투데이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만나 민선 7기 1년의 시정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제가 취임 선서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일들이 성과로 이어졌고, 한편에서는 갈등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격려와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대전시정을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은 지역의 오래된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민선7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3년은 계획했던 일들을 구체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전 시정의 성과, 시장님은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민선7기 1년은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현안들이 하나 둘 씩 실마리가 풀리고, 미래대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러 성과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시민주권 시대를 연 것입니다. 새로운 대전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출범,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추진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민주권시대를 개막한 것입니다.

또한, 10년간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공모사업 유치, 대전교도소 및 하수처리장 이전,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 등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대덕특구 반경 10㎞내 총15㎢),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공모사업 유치로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대전을 향한 비전과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덕특구 재창조’ 비전 선포에 힘입어 총리실 주관 국책사업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3조 611억 원을 확보(전년대비 8.6% 증가)해서 처음으로 3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향후 대덕특구 재창조, 융합의학인프라 조성 사업비 등 미래 먹거리 산업 관련 국비를 대거 확보해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난 1월 29일 예타 면제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7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트램도시광역본부 설치 운영 시작됐습니다. 전체 순환선으로 예타 면제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기본계획변경(안)은 1구간(서대전역~가수원) 뿐만 아니라, 애초 기본계획에서 배제되었던 2구간(가수원~서대전역)를 모두 포함하여 36.6㎞의 완전한 순환선으로 계획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전육교(0.65㎞)와 테미고개(1.06㎞) 지하화, 사업비는 예타 면제 사업비 6천950억 원에서 8천43억 원으로 1천9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기본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설계 착수할 (50억원 기확보) 예정입니다.

트램은 한정된 도로용량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 도심 내 승용차 통행량을 줄이고, 도심지 교통혼잡 완화에 기요하고, 원도심재생과 연계하여 트램 정거장 중심으로 특색 있는 개발을 통해 가로상권 활성화, 도시경관 증진 등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베이스볼드림파크도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데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난 7월 25일 대전시민들의 큰 관심이었던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기본계획(안)은 야구장 형태는 개방형으로 하되, 향후 대전시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시점에서 돔구장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및 기초를 시공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52,100㎡, 지하1층 지상4층, 관람석 2만2천석, 주차장 1천863대로 사업비 1천393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되고, 지하1층은 주차장과 구단관련시설, 지상1층부터 지상4층까지는 키즈파크, 관람석, 편의시설, 파티장 등이 조성되며 오는 2024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됩니다.

특히, 그라운드 레벨을 지상1층 바닥 보다 6.5M를 낮추어 관람석과 야구장 그라운드의 근접 설치로 다이내믹한 관람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1층 관람석 후면의 콘코스(실내 광장) 어느 곳에서나 야구경기를 잘 볼 수 있게 건축할 계획입니다.

교통계획은 승용차 이용자와 트램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의 동선을 분리하고 야구장 북측은 완화차로와 트램 및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의 일환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승용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출·입구를 4개소(북측1, 동측2, 남측1) 설치하고 남측 도로를 현재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며 북측 2차선 진입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하고 트램 및 시내버스환승센터에서 진입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해 별도로 보도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구장 외부공간은 한화이글스 MVP 명예광장, 다목적 광장, 야외공연장 및 생태주차장 등이 조성되고 줄 없는 번지점프 및 야구장 조망대 등 익스트림 체험시설, 야구장 내 놀이시설로 스카이서핑 등을 조성하여 야구경기가 없는 비시즌 기간 중에도 외지 여행객과 시민들이 1년 연중 방문하는 테마형 파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광벨트로 조성하여 시민이 언제라도 와서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다양한 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지역의 고용률이 정체되어 고강도 일자리 확대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 대전에서 발생된 A형 간염, 홍역 등 감염병으로 시민 불안이 확산되어 재난 대응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또 하나는 지난 1년 사이 사회적 갈등이 많았습니다. 트램,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 야구장 건립 관련 시민 갈등이 표출된 것 등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계신지요?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6월 14일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부결’ 되었습니다.먼저, 월평공원 갈마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합니다. 작년하반기 공론화부터 도계위 심의과정까지 절차이행이 장기화 되면서 사업 찬반논란과 갈등 또한 지속되어 왔으나, 이제 사업 방향이 결정된 만큼 향후 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의 거점녹지공간으로써의 상징성과 역사성, 인근 주거지역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가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기본적인 생태 복구와 환경보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6개소입니다.이 중 10개 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2천522억)이 확보되어 매입 중에 있으며, 5개 공원은 토지매입과 공원조성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7개 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자동실효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봉지구는 지구특성에 부합되도록 4차 산업혁명과 대덕특구 재창조 등 국가사업과 연계한 매입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입니다.

▲지역민들의 우려 중 하나가 계속되는 인구유출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가요?

인구문제는 어려운 문제로, 지방 대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임. 대전의 인구는 6월 말 현재 148만 2천93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9만여 명의 인구가 세종시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에 대해서는 경쟁·갈등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충청권 광역경제권의 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4차 산업을 육성하고,산업용지를 2025년까지 공급, 지역 기업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혁신도시 지정을 충남과 충청권이 함께 힘을 합해 추진하겠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100개소),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30개소), 공공산후조리 지원(모든 출산가정)으로 여성과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가 시작되었는데, 그 내용이 알찬 반면 홍보가 부족해 방문객이 적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19~2021 대전방문의 해」추진은 올해가 대전 도시여행의 새로운 틀을만드는 원년입니다.

2021년까지 새로운 여행 콘텐츠 개발, 상설여행상품운영, 신규 여행인프라 확충,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4대 추진전략으로 ‘국내 여행 선도도시로 도약’이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보 트랜드에 맞는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 일환으로 유명 유튜버와 홍보대사를 활용, 대전 여행 관련 영상을 제작해 인지도 확산과 대전방문을 유도하고, 네이버·다음 등 포털광고를 통해 토토즐 페스티벌 등 주요행사를 홍보하는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찾는 방문객들이 주요 축제와 행사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캘린더를 제작해 손쉽게 대전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외래여행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인프라를 조성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대전이 매력있는 도시관광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노력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도 높은데요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2005년 5월 참여정부는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고, 10개 혁신도시에 대해 153개의 공공기관을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은 인근의 세종시 건설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전정부청사 등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를 30%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전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어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에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 하자고 합의했습니다.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올해 최대 현안 사업을 ‘혁신도시 지정’으로 정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는 물론 시민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년으로 민선7기 4년을 평가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1년을 지내보고 앞으로 남은 3년을 이렇다 저렇다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한가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는 사상이면서 그 사상을 실현하는 도구와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민주권은 그 하나의 방법이며, 민선7기 시정철학으로서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받을 것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정으로 대전이 한층 더 성장하는 도시로 변할 것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이제 민선 7기 2년차에 접어들었고 남은 3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취임선서를 했던 1년 전 그 첫 마음으로 새롭고 힘차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참여를 위한 각종 제도들을 마련하여 시민주권시대를 공고히 하고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 트램 건설 등 기존의 대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약속사업을 비롯해 혁신도시 지정, 대덕특구 재창조 등 대전의 미래를 결정하고 도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대담= 이정복 부국장 · 정리= 김태선 기자

●동 정●●●

생명존중도시 대전 선포식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2일 오후 3시 30분 대전시청에서 열리는 2019 생명존중도시 대전 선포식에 참석.

생명존중도시 대전 선포식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2일 오후 3시 30분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생명존중도시 대전 선포식에 참석.

생명존중도시 대전 선포식

황인호 동구청장= 2일 오후 3시 30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생명존중도시 대전 선포식에 참석한다.

먹거리장터 운영회의 주재

박용갑 중구청장= 2일 오후 3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11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먹거리장터 운영회의' 주재.

주민설명회

장종태 서구청장= 2일 오후 2시 사정어린이공원에서 열리는 어린이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보고회

박정현 대덕구청장= 2일 오전 10시 30분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에 참석.

대전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대전시에서 주최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 대전마을기업지원기관이 주관하는 2019년도 대전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 오는 24일~25일 대전시NGO지원센터 모여서 100에서 진행된다.

2020년도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자는 설립 전 교육을 16시간 이수해야하며 5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참여해야한다.

설립 전 교육은 ▲사회적경제와 마을기업의 이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 ▲우수 마을기업 사례 ▲마을기업가의 철학과 역할 ▲마을기업 비즈니스모델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등 총 16시간으로 구성됐다.

교육 신청은 2일~18일 오후 6시까지, 대전시청 및 자치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기해 대전마을기업지원기관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년차는 최대 5000만 원, 2년차는 최대 3000만 원, 3년차는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안정된 일자리 및 소득 창출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 문의 대전마을기업지원기관(042-254-1581)

송병배 기자

도시환경 디자인으로 범죄예방 사업 준공

대전시, 사업비 15억 원 투입… 폐쇄회로TV · 반사경 · 안심벨 · 경관조명 등 설치

대전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선도사업으로 동구 대전역 인근, 중구 충대병원 남측 주거지, 유성구 갑천근린공원, 온천소공원 총 4곳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셉테드 관련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선정된 사업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관 전문가, 경찰청 범죄예방진단팀(CPO)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실시설계에 반영, 지난 1월 착공했다.

동구 '기차길옆 꽃빛 길 조성사업'은 셉테드 입간판설치, 파사드 정비, 대형화분이 설치되었고, 중구 '과례로 범죄예방 솔루션'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 설치, 옹벽 도색 및 반사경 등이 설치됐다.

유성구 '별빛이 내리는 밤'은 경관조명, 고보조명 등이 설치돼 유성온천 축제와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와 더불어 개방성이 강화되고 야간범죄 발생의 불안감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동구 '기차길옆 꽃빛 길 조성사업'은 동네 주민 50여명이 직접 화분을 제작해 주민이 원하는 수종으로 집 앞에 설치하는 주민참여 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는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가꾸는 시민에 의한 시민의 사업이다.

대전시 송인록 도시경관과장은 "지속가능한 셉테드 사업이 대전시 전역으로 확산되면, 지역의 주민이 지역의 안전을 만들어 가고, 지역 범죄 발생빈도가 크게 떨어져 야간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전만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7년 대화동 어린이 공원에 셉테드 기법과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사업을 완료한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I)'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년대비 범죄율이 78% 감소하고, 범죄예방 효과에 80%이상, 야간 취약지역 개선에 65%이상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범죄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김태선 기자

추석 앞두고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실시

유성구, 제동장치 · 전기장치 등 기본적인 차량점검 등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와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 조합(2개 조합)은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성구청 주차장에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민 600여명이 찾아 추석 명절 장거리 자동차 운행을 앞두고 엔진과 제동장치, 전기장치, 타이어 등 기본적인 차량점검과 더불어 각종오일이나 워셔액 보충, 전구 및 윈도 브러시(와이퍼) 등 소모품 교체가 무료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점검 받은 차량이 정밀점검이 필요해 유성구 정비업소를 찾을 경우 차량점검표를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됐다.

유성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명절 귀성길과 귀경길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길이 되길 바란"며, "앞으로도 꾸준히 구민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일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미래성장 동력 확보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동구, 4차 산업혁명 · 원도심 활성화 벤치마킹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30일부터 2일간 서울시 일원을 대상장소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간부공무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실행중인 현장을 방문 견학함으로서 민선7기 약속사업 실행력을 강화하고 간부공무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교육 일정은 성동구 4차 산업혁명체험센터를 방문해 드론, 3D 프린팅, 로봇, 가상현실 등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조선시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서울 서촌에서 전통과 혁신 사이에 새로운 리더십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조선판 뉴타운 '익선동'을 찾아 낡은 한옥마을을 도시재생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한 현장을 찾아 벤치마킹하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선진 관광 명소 방문을 통해 우리 구 관광프로그램 및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얻어내고자 마련했다"면서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 확보로 새로운 정책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관내 불법 다운계약방지 서구 집중 지도 · 단속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달 20일 자로 갑천 3블럭(트리플시티)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불법적으로 성행하는 다운계약 근절을 위하여 도안동 일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 · 단속을 한다.

이번 중점 점검 사항은 분양권 다운계약, 중개보수 과다수수, 부동산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작성 적정 여부 등이다.

또한 부동산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하여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물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다운계약 확인된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를, 중개업자에게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내린다.

서구 관계자는 "갑천3블럭(트리플시티)에 대하여 실거래금액으로 거래 신고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 단속을 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대덕구 팔캉스 축제 열려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31일 '2019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오정동 한남로88번길 일대에서 추진한 '팔캉스' 축제가 박정현 구청장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8월의 마지막날, 한남로88번길에서 치르는 바캉스란 의미를 담은 '팔캉스' 축제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청년이 88로 이웃되기'라는 주제 하에 쥬크박스 버스킹, 1인 홀로그램 영화관, 거리몸짓전, 지역상인과 함께하는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일 열려 축제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청년의 눈, 귀, 입까지 만족시켰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팔캉스 축제를 통해 오정동 한남로88번길이 도시재생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하나 되어 세대간 갈등을 극복하고 문화적 DNA가 살아숨쉬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적도시재생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시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해 침체된 도심과 공동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한 사업으로, 지난 4월 4일 대덕구가 대전 · 충청권에선 유일하게 선정돼 추진 중인 사업이다.

김태선 기자

대덕e로움과 함께하는 대코

맥주페스티벌 시즌2

대덕구, 9월 6~7일 20~21일 신탄진 · 비래동서 개최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오는 9월 6일~7일과 20일~21일 4회에 걸쳐 지역화폐 대덕e로움과 함께하는 대코(Daeco) 맥주페스티벌을 신탄진역 앞 새시장상가거리, 비래동행정복지센터 앞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난 7월 매회 흥행대박을 기록하며 12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던 대코(Daeco) 맥주페스티벌은 대덕e로움 초기 사용자 확산과 중리동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

이번 행사는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 아래, 대덕구 내 권역별 상권 활성화와 각 상인회의 적극적인 행사개최 의사에 따라 행사를 장소를 옮겨 신탄진동과 비래동 골목상권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대코(Daeco) 맥주페스티벌은 대덕e로움 사용자 확산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행사다. 대코(Daeco)는 대덕e로움이 추구하는 대덕경제(Daedeok-economy), 대덕공동체(Daedeok-community), 대덕화폐(Daedeok-coin)라는 세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시즌2 행사는 이전보다 더 화려한 뮤지션과 더 다양한 먹거리가 선보일 예정이다. 박미경, 구준엽, 울랄라세션, 라붐, 김현정, VOS 등 최정상의 인기가수 공연과 김나희, 정다경, 두리 등 미스트롯 출신 6명이 트롯의 향연을 펼치는 콘서트도 열린다.

또한 버스킹 공연, 신청곡과 사연을 소개하는 라디오DJ박스, EDM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진다.

또한 각 행사장은 무지개 색깔의 우산이 하늘을 뒤덮어 장관을 연출하고 거대한 포토존 역할을 하게 된다. 동시 수용인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먹거리존은 생맥주와 다양한 먹거리가 판매되며, 행사장에서는 반드시 대덕e로움 카드를 사용해야 음식을 사먹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다. 이에 구는 행사장 곳곳에 현장발급 창구를 마련해 대덕e로움 사용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대코(Daeco) 맥주페스티벌은 지역 골목상권을 대외적으로 알려 핫 플레이스로 만들고, 지역화폐 대덕e로움의 효용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라면서,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목상권 축제로 키워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4회에 걸친 행사기간 동안 흥행대박을 기록했던 것 못지않게 이번 행사도 알차게 준비한 만큼, 친구 · 연인 ·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추억 많이 담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행사장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선기자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9~11월, 322억 원 징수목표 강력 징수활동 추진

대전시는 9월부터 11월말까지를 '2019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596억 원, 세외수입 798억 원 등 모두 1,394억 원이다.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의 체납액이 455억 원이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과태료 체납액이 547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23.1%인 322억 원 징수를 목표로 부동산 및 차량,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압류는 물론 공탁금, 보험금, 저당권, 가처분, 전세권 등 제3채무자를 통한 채권을 압류하고, 시 · 구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 등록자와 운행자가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 등 이면을 활용 운행정지신청 제도를 홍보하고, 운행정지 명령위반 차량이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고속도로 통행 등 운행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직권말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권오균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은닉재산 집중 추적조사, 체납규모별 효과적 대응체계 등을 통해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온천2동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밑반찬 나눔행사 유성구새마을부녀회(회장 김경옥) 산하 온천2동부녀회(회장 유미숙)는 2019 추석을 맞아 마음으로 전하는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지난달 30일 온천2동행정복지센타에서 새마을지도자 30명이 모여 배추김치, 깻잎, 새우젓 3종을 정성스레 포장해 어려운이웃 50세대에게 전달했다.

● 동 정 ● ● ●

9월 직원모임

김석환 홍성군수= 2일 오전 8시 40분 군청 대강당에 서 열리는 9월 직원모임에 참석.

홍성군 차량번호인식시스템

77%업데이트 완료…주민불편 방지

자동차 번호판 체계 변경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8월 30일을 기준으로 홍성군 내 공공·민간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시설물 89대 중 69대(77%)가 이달 중 업데이트 작업을 마치며 교통혼란과 주민불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말 2300만 대를 넘어서며 현행 7자리로는 등록번호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키로 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신규 발급 번호판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량번호인식시스템도 새로운 번호체계에 맞춰 업데이트가 필요해졌으며, 홍성군내 대상 시설은 공공기관(CCTV, 카메라) 공영·민영 주차장, 교정시설, 병원, 아파트, 마트 등 총 15개소 89개로 확인됐다. 이 중 공공시설은 6개소, 민간시설은 9개소다.

이에 군은 올해 3월부터 관내 기관장과 병원, 공동주택 등 번호인식시설물 관리자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번호판 도입과 번호인식시스템의 업데이트 필요성을 홍보해왔다.

그 결과 8월 30일을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경우 67개 중 66개(98%)로 잠정 집계됐으며, 남은 1개 시설물도 9월 초까지 완료 될 예정이다. 민간시설의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과 내년 7월에 도입되는 재귀반사형 번호판의 인식여부 때문에 업데이트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22개중 3개(13%)로 잠정 집계됐으며, 8월 내 완료하지 못한 19개 시설물은 차후 업데이트를 진행할 전망이다.

또한 군은 지난 8월 27일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업데이트를 독려하고 시설물관리자와 대책을 수립했다. 민간시설물의 경우 개폐기 미작동 시 출입구 및 주차장 개방, 인력배치와 수동조작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민불편과 교통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 2일 군 차량 등록부서에서는 신규 번호판 배부 시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 출입 시 문제점과 대응요령, 시·군별 민원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업데이트 관련 민원 신속 처리를 위해 도와 시·군·구별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현장대응팀도 구성해 반복 민원 발생 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8자리 번호판 부착 차량이 원활하게 출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대형마트 등 시설 관리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아직까지 미완료된 민간시설물은 업데이트 전까지 인력을 배치해 개폐기를 개방하거나 수동으로 조작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 1400년 전 백제의 춤꾼들

제65회 백제문화제 홍보 플래시몹 펼쳐 국내외 관광객들 눈길 사로잡아

"1400년 전 한류원조 백제의 미마지 춤꾼들이 서울에 나타났다!"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제65회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8월 3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제65회 백제문화제를 홍보하는 플래시몹(Flash mob)을 펼쳐 국내외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백제기악을 일본에 전파한 '미마지'의 기악탈과 백제복장을 갖춘 200여명의 플래시몹 홍보단은 이날 백제문화제의 주제곡인 '대백제의 숨결'에 맞춰 멋진 춤사위 및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백제인 '미마지'는 612년 왜(일본)에 기악무를 전해 일본 고대 음악형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 시대의 기악면(탈)과 기악복장 등이 교토국립박물관 등에 남아있어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국제성을 드러내는 증거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플래시몹은 오늘날 한류의 기원(원조)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마지의 '백제기악'을 테마로 하여 출연진 전원이 기악탈과 백제복을 착용하고, 백제문화제 주제곡에 맞춰 백제춤 퍼포먼스를 펼친 것이 특징이다.

비보이팀 '피스메이커'의 비보이·비걸 12명이 서울역 광장에 운집한 관중들 사이에서 뛰어나와

절도 있고 박력 넘치는 강렬한 퍼포먼스로 첫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어 충청남도 예술단체인 최원영 무용단원 20명이 화려하고 섬세한 춤사위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마지막으로 공주와 부여 지역학생 170명이 가세하여 흥겨운 춤과 율동으로 유쾌하고 신명나는 난장을 선사했다.

행인들은 가던 발길을 멈추고 공연 모습을 촬영하거나 어깨춤을 들썩이며 호응하는 등 신명 한마당에 적극 동참하였고, 제65회 백제문화제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플래시몹에 앞서 타악그룹 '블로코 플랜타'가 서울역 광장 일원을 순회하며 특유의 쌈바와 레게 리듬으로 행인들의 이목을 끌어 모았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직원들은 행사장 주위에서 리플릿과 기념품, 홍보이벤트 등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플래시몹 공연 장면은 사진 및 영상에 담아 향후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하고, 내년 백제문화제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세종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총괄과장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문화축제인 제65회 백제문화제를 재미있게 홍보하기 위해 한류원조 백제의 의미를 담은 플래시몹을 마련했다"며 "이번 가을 백제문화제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세종시 전동면-고운동 김장용 배추 모종 심기

세종시 전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전만익·한석수)가 30일 전동면 보덕리에 위치한 텃밭에 김장용 배추모종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동면과 고운동 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30여 명이 올 연말 김장나눔 행사에 쓰일 김장용 배추 모종 1400포기를 심었다.

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년 사랑의 김장나눔을 통해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하며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있다.

전동면과 고운동은 자매결연 협약 이후 도농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매년 전동면의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와 문화체육행사, 사랑의 김장 나눔 등 각종 행사를 함께 추진해왔다.

8월 환경정화의 날 활동 실시

세종시 고운동주민센터(동장 임재일)가 지난달 31일 직능단체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운동 앵두꽃 어린이공원 주변 단독주택부지에서 8월 환경정화의 날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추진하는 고운동 환경정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학생 및 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대거 참여해 청결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날 고운동 직능단체 및 주민들은 각종 생활쓰레기, 방치폐기물, 불법 옥외광고물 등을 수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홍보캠페인도 병행 실시했다.

김태선기자

여름 끝자락 남당항 대하축제와 함께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오며 지역별로 특산품이 테마인 먹거리 축제가 대세다. 특히 가을이 제철인 대하는 가을철 대표 스테미너 음식으로, 전국 미식가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가족들과 대하도 먹고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체험도 즐기는 남당항 여행 코스, 충남 홍성군이 추천하고 나섰다.

▲'제철' 맞은 남당항 대하축제…9월 15일까지

올해 24회째를 맞이하는 남당항 대하축제는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며 서해안 대표 축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대하의 작황이 좋아 kg당 3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하다. 가족여행객들을 위한 축제 프로그램도 다수 선보인다.

맨손 대하잡기 체험을 통해 살아 있는 대하를 맨손으로 잡아보는 색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으며, 새우요리 경연대회, 갯벌체험, 농악경연대회 등 더욱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축제 프로그램은 축제기간 주말에만 진행된다.

군은 방송사 섭외는 물론, 구독자수 130만을 바라보는 유튜브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을 일일 홍보대사로 섭외하며 축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속동 갯벌체험, 잊을 수 없이 아름다운 서해안 낙조

아이들과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다보면 하루가 짧다. 영화 <불타는 청춘> 촬영지로 유명한 속동 전망대는 산책을 즐기기 좋은 둘레길도 유명하며, 해질녘에 떨어지는 낙조는 수채화 못지않은 아름다움으로 운치를 더한다. 타이타닉을 연상시키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 연인, 가족과 영화 속 장면을 재연하는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또 다른 즐거움, 천수만 해상낚시공원과 서부면 상황리 오토캠핑장

천수만에는 전국최대의 해상낚시공원이 강태공들을 기다리고 있다. 천수만 천혜의 자연경관, 생동감 넘치는 바다의 생명력,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 자연산 우럭, 광어 등 풍부한 어종의 자연낚시가 가능하고 여성들도 손쉽게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가두리 낚시 시설 4곳도 설치되어 있다.

상황리 오토 캠핑장은 대지면적 1만 581㎡에 넉넉한 41개 사이트와 함께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 장, 족구장, 쉼터 등 다양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캠핑매니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장실, 샤워장, 매점들의 편의시설도 알차게 갖춰져 있다.

그 밖에 테마전시관과 VR 영상관, 각종 수산자원 모형과 체험시설을 갖춘 수산물웰빙체험관을 비롯해 조류의 종류와 습성을 배울 수 있는 조류탐사과 학관과 저렴한 가격으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홍성군 승마체험장도 눈여겨볼 남당항 여행코스다.

군 관계자는 "주말 가족, 연인과 함께 남당항에 오셔서 잊지 못할 추억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예산군,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에 따른 5년 2100억 원 국비 지원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것

예산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 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군을 포함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성장촉진지역은 전국 159개 시·군에 대해 인구·소득·재정·접근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을 비롯한 성장촉진지역은 지정이 될 경우 5년간 매년 약 2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지정하는 것으로 이번 재지정은 2014년 재지정 이후 두 번째이며, 군은 재지정 이후 5년 동안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168억 원),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52억 원), 치유의길 조성(27억 원) 등 14개 사업에 대해 48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충남도, 보령댐·도수로 찾아 가뭄 대응 상황 점검

양승조 지사 "가뭄 대응 온 힘"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의 생활·공업용수원인 보령댐이 경계단계에 진입하며 도수로를 통해 금강 물을 공급받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지사가 가뭄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다.

양 지사는 1일 부여군 규암면 금강 백제보 하류 보령댐 도수로 취수장과 보령댐을 잇따라 방문했다.

보령댐 도수로 취수장에서 양 지사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K-water 보령권지사로부터 가동상황을 들었다.

또 금강 물 취수량과 보령댐으로의 공급 방법, 수질 등을 물은 뒤 보령댐 저수율이 경계 단계를 벗어날 때까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취수장에 이어 보령댐으로 이동한 양 지사는 현재 저수율과 서부권 용수 공급 현황, 도수로를 통한 용수 공급 상황, 향후 저수율 전망 등을 듣고, 문제점은 없는지 살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가뭄으로 보령댐 저수율이 크게 떨어진 데다, 향후 강수량 부족 시 내년 봄에는 심각 단계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걱정이 크다"라며 "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수로를 가동하는 한편, 급수체계 조정 등을 통해 가뭄에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자원순환축제 성료… 자원순환 중요성 되새겼다

세종시, 시민·자원봉사자 적극 참여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2019 세종시 자원순환축제'가 많은 시민과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린 이번 축제는 시가 후원하고 세종YMCA,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YMCA자원순환센터, 마을과복지연구소, 마을기업 에코-루의 공동주최로 이뤄졌다.

고려대학교 농악대와 재활용밴드 홀라(HOOLA)의 공연을 시작으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청소년, 청년, 시민이 입을 모아 자원순환 선언문을 낭독하고 자원순환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축제는 일회용품과 쓰레기 없는 축제로 기획돼 시민들은 개인컵을 들고 오거나 행사장에 마련된 유리 머그컵을 빌려 사용한 후 씻어 반납해야 했다.

축제에 참가한 한 시민은 "일회용품과 쓰레기 없는 축제가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와서 경험해 보니 기우에 불과했다"며 약간은 불편했지만 축제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축제에서는 ▲도전! 골든벨 ▲재활용패션쇼 ▲우리밀 체험교육 ▲벼룩시장 ▲환경영화 상영 ▲분리배출 체험교육 ▲재활용 뗏목 만들기 ▲청소년 원탁회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프로그램의 백미인 '도전! 골든벨'에서 우승한 000씨 가족(00동)은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해서 신청했는데, 우승까지 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이번 기회에 배운 것들을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활용 패션쇼 청소년·청년부에서는 000을 소재로 000을 출품한 000씨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한 뗏목 만들기,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종이팩 사물인터넷(IOT) 무인수거함, 빈병무인회수트럭 등 체험 프로그램에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임중수 세종YMCA 이사장은 "이번 자원순환축제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처음 추진한 축제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즐겨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더 나은 내용의 축제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충남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개소식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전담 센터 '활짝'

충남도가 전문 체력 측정을 통해 도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을 내리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나선다.

도는 지난달 30일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충남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2019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공모 사업'에 선정돼 설치한 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도내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과학적인 체력 측정으로 개인별 체력 진단 및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한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 도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 시·군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경과보고, 커팅식, 시설 견학 및 장비 체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8월 한 달간의 시범운영 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 등을 공유하고, 아산장애인국민센터 내 시설을 둘러보며 체력 측정 장비들을 직접 체험했다.

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서는 시각·청각·지체·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체력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하고, 측정 결과를 토대로 한 상담·운동 처방은 무료로 진행한다.

근력·근지구력·심폐지구력·유연성·근관절기능·평형성·기초의학검사(체성분 측정)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검사 장비를 갖췄으며,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내 체력측정실 및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체력측정트랙 등을 활용한다.

운영조직은 센터 관리자 1명과 운동처방사·체력측정사 4명 등 총 5명의 전담 인력으로 구성했으며,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응급상황반을 상시 운영한다.

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시설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측정 및 상담도 시행할 계획이다.

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이용을 원하는 개인·단체는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유선 전화(041-531-5911) 및 누리집(https://hfa.koreanpc.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 지사는 이날 개소식에서 "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8월 1일부터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운영 등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체력을 향상시킬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강 증진은 물론이고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환 기자

허삼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임식

천안교육지원청 제28대 허삼복 교육장은 8월 30일 오전 이임식을 끝으로 1년6개월간의 교육장 임기를 마감했다.

9월1일자 전출직원들과 청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이임식은 전출자 소개와 개인별 이임사, 교육장 약력 · 공적소개, 교육장 이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떠나는 자리를 함께 한 청 직원들은 그간 열정과 사랑으로 천안교육을 위해 애쓴 교육장의 모습을 떠올리며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2018년 3월 부임한 허삼복 교육장은 '행복한 학교 꿈이 있는 천안교육'을 목표로 학생 성장을 돕는 참학력 교육과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구축 등을 역점과제로 추진해 많은 성과와 실적을 거뒀다.

주요 실적으로는 2019년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장애학생체육대회 우수기관 표창, 천안학생수영장 증축, 과대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천안성성유치원, 천안성성초 개교 및 2020년까지 4개교 신설하교 설립 등이 있다.

9월1일자 천남중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허삼복 교육장은 이임사를 통해 "애국충절과 교육의 도시 천안에서 교육장으로서 근무한 지난 1년6개월 동안 때론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럼에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자로서의 자긍심과 보람 때문이었다. 새로운 임지에서도 학생교육에 매진하며 천안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전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농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한 정책 토론회

"마을공동체 총괄부서 신설, 공무원 순환보직제 개선,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육종영 시의원(성환,성거,직산,입장), (사)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과 함께 지난달 31일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일동 대강당에서 '천안시 농촌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시 농촌마을이 과소화, 고령화 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농촌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천안시의 주민주도형 농촌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육종영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촌지역의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농촌 마을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된다"며 "농촌 마을 공동체가 농촌 지역에 신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는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구자인 센터장의 '농촌마을정책의 동향과 지자체 당면과제'

▲청양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노승복 센터장의 '농촌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청양군 사례)' ▲(사)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박두호 상임이사의 '천안시 농촌마을정책의 향후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특히, 천안시 농촌마을정책의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한 박두호 상임이사는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TF구성과 민 · 관 정기 간담회 추진 및 천안시 마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허승욱 단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단국대학교 김태현 교수는 중간지원조직 지원 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성거읍 삼곡리 권영구 이장은 "2018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사업이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전반적인 사업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천안시청 박은주 일자리경제과장은 마을공동체 총괄 부서 신설 및 순환보직제 개선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지방이양 사업들에 대한 도비 확보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타 시군 사례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성과 현장성이 지속가능하도록 공무원 순환보직제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천안시에 주문했다. 또한, "민 · 관이 함께 중간지원조직을 강화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는 박완주 국회의원, 육종영 시의원, 구본영 천안시장, 인치견 천안시의장, 조소행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 농협 조합장, 농민단체, 주민 등 15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김성구기자

당진교육지원청, 9월 독서의 달 행사 운영

당진교육지원청 당진도서관(관장 문정숙)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독(讀)독(讀)독(讀)! 책이 노크하네요'를 주제로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도서관 이요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화 전시 및 북 큐레이션 가족영화 상영, 「다독다독 독서릴레이」, 「도서관 처음 가기 좋은 날」, 「연체자 특별사면」, 「두배로 대출 DAY」, 「도서관 출석도장 쾅! 쾅!」, 「책 읽는 모습」 사진 공모전 등 13개의 프로그램을 9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독서의 달 행사별 참여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당진교육지원청 당진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도서관에 마련된 행사 리플릿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제38회 금산인삼축제와 함께 금산인삼축제광장에서 열려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은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초등부문)"를 오는 28일 제38회 금산인삼축제가 열리는 금산인삼축제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는 국내 최대 청소년동아리 문화축제로 금년에도 전국의 약 400여개 동아리 2000여명이 참가해 그룹사운드, 오케스트라, 어커펠라 등 음악부문과 비보이, 힙합, 치어리딩 등 댄스분야, 사물놀이, 탈춤, 연극 등 전통무대분야와 전시체험 부스 운영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일반관람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동아리 출신 그룹 "제이모닝"이 특별 축하공연해 후배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응원할 예정이다.

금산군에서 청소년동아리 문화발전과 21세기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패기있는 도전, 아름다운 미래, 네 끼를 펼쳐라!"로 청소년들의 끼를 자유롭게 발산하고 자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청소년 동아리들은 이달 16일까지 청소년동아리연맹(www.kyca.net) 참가신청을 할수 있다.

한편 중등(중학생,고등학생)부문 경진대회는 11월2일 화성시 장안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동아리들은 10월11일까지 청소년동아리연맹(www.kyca.net)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송병배기자

박남주 의원 "천안박물관 문화의 허브로 만들자"

제225회 임시회 2차 5분 발언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8월 30일 제225회 임시회 2차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시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남주<사진> 의원은 '천안박물관을 문화의 허브로 만들자'라는 주제로 천안박물관 본연의 기능인 천안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지역 문화 허브 공간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박물관을 전문가가 직접 경영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환원 하는 것에 대해 제안했다.

박 의원은'과연 지역의 문화 허브공간인 천안박물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박물관장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거나 아니면 국장 승진 등을 위하여 잠시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이 되어 있고, 전문직 자리로 있던 학예팀장 보직에도 행정직이 오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천안박물관의 역할 증대 및 발전은 커녕 퇴보시키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한다며 지난 10년 동안 천안박물관의 역할이 무엇인가? 작년이 천안박물관 개관 10주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 박물관이 그간 무엇을 했었는지 반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백범 김구선생은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천안이 문화도시로서 성장하려면 우선 기초가 튼실해야 한다. 천안박물관의 정상화와 활성화가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고 강조하며 '미래지향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전문행정을 표방할 수밖에 없으며 전문화되고 특화된 조직이 되어야한다. 이제 박물관을 전문가가 직접 경영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환원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이름으로 말씀드린다' 라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천안=이정복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호서대,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종합장려상' 수상 호서대학교(총장이철성)는 기계자동차공학부 자작자동차동아리 CHALLENGER팀이 최근 한국자동차공학회(KSAE)가 주최하고 군산시가 후원한 '2019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에 출전해 포뮬러 부분 종합장려상을 수상했다고30일 밝혔다.

아산시, 아산시청소년재단 설립 허가 신청

사전협의 결과 토대로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신청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27일, 충남도에 아산시청소년재단 설립 허가신청을 냈다.

청소년재단 설립절차는 재단설립 적합성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자체 타당성 검토 후, 충남도와 사전협의를 거쳐야만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6월 충남도와 사전협의 후 19일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 청소년재단설립 '적정' 회신을 받은 상태이다.

시는 아산시청소년재단 조기 설립을 위해 27일 충남도 예산담당관실의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설립허가를 신청했다.

설립허가 결과는 9월 중에 나올 예정이며, 시는 설립허가증이 나오면 3주안에 설립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향후 아산시청소년재단이 설립되면 청소년 관련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 운영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장 지원체계 확대, 청소년 미래 핵심역량강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립을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교육, 직업진로 컨설팅, 청소년 문화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학부모 및 지역 전문직업인 등의 자원을 활용한 진로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진로 코칭센터 운영, 학교와 마을의 상생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꿈과 끼를 키우고 미래 교육을 지향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는 마을 교육 커뮤니티 센터 운영 등을 구상 중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충남경찰, 추석명절 앞두고 종합치안활동 펼친다

9월 2일부터 15일까지 2단계 걸쳐 종합치안대책 추진

충남지방경찰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종합치안활동을 펼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평온한 추석연휴를 위해 9월 2일부터 15일까지 2단계에 걸쳐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는 평상시보다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범죄대응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1단계(9월 2일~8일) 기간에는 범죄예방활동과 홍보활동에 주력한다.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 편의점 및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침입절도 예방 및 범죄신고와 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2단계(9월 9일~15일) 기간에는 확인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보다 강력히 범죄에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 사건사고 등에 대비하여 긴급 신고 시 가까운 경찰관서 간 공조 ·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112총력대응' 체계를 갖추는 한편,빈집 및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대상 강 · 절도예방을 위한 집중순찰과 갈취 · 조폭 · 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 내 주취소란 및 강 · 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범죄수사대를 현장에 투입하여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한다.

아울러 교통 혼잡 관리를 위해 교통 · 지역경찰을 최대한 투입해 고속도로와 혼잡교차로 등 정체구간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예방 합동 순찰을 통해 연휴기간 치안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도민이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기능에서 추진하는 종합치안활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인증' 획득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 간호학과는 지난 28일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실시한 '2019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다.

간호학과 학사학위 프로그램 간호교육인증 기간은 2019년 12월12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 5년이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재학생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교육성과와 교육과정 운영, 교육 여건 등이 국가와 사회, 간호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공식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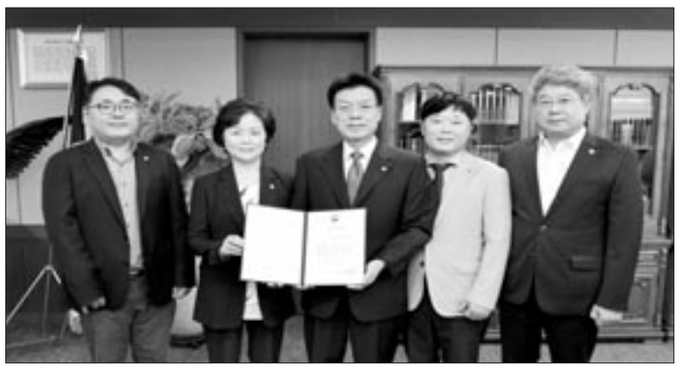
공주대학교 간호학과는 '2014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제2주기)에서 5년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9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제3주기)에서도 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 등 총 6개 영역, 14개 부문, 28개 항목에 대한 서류평가와 방문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이번 평가에서 5년 인증 획득을 받음에 따라 인증 유효 기간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연장됐다.

공주=정상범기자

백석문화대 도서관, 2018 전국대학도서관 평가 교육부장관상

교육부 주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행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 도서관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한 '2018년 전국대학도서관 시범평가'에서 우수기관(사립/전문대학2년제 A그룹, 1위)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학도서관 시범평가는 전국 382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발전 기반 및 사서역량 강화 ▲도서관 운영 ▲도서관 경영의 단기적 성과 ▲도서관 경영의 장기적 성과에 대해 균형성과평가(BSC, Balanced Score Card)를 기반으로 총 40개 정량지표를 진단했으며 대학 규모에 따라 그룹을 나눠 총 6개의 우수대학이 선정됐다.

백석문화대 도서관은 사립/전문대학(2년제) A그룹(4,000명 이상) 49개 대학 중 최고점을 받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백석문화대 도서관은 ▲독서클럽 ▲독서인증제 ▲독서감상문쓰기대회 ▲사서추천도서특별전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최해 독서 장려 및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천안 인근지역 대학들과의 공동이용 대출 및 열람서비스, 지역주민 대상 자료 및 시설개방 등으로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천안=김정환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대전 방문해 특진 경찰관 임용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8월 30일 오후 대전경찰청 6층 대회의실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황운하대전경찰청장, 이철구 경찰청 경비국장, 수사과 사이버수사대 윤정호 경감및 가족을 비롯한동료 직원 10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특진 임용식을개최했다.

공주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 운영 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지난 30일 화재안전특별조사 제3기 시민조사참여단이 지역 내 주유소를대상으로 조사를실시했다.

aT, '청렴시민감사관 합동 워크숍'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29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 16개 참여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청렴시민감사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새마을지도자동구협의회, 대전천 수중 환경 정비 새마을지도자동구협의회(회장 이경원) 산하 신인동협의회(회장 유영환) 동구새마을부녀회(회장 백승자) 산하 신인동부녀회(회장 김행연)는 지난달 28일 새마을지도자 남·여 15명과 관내 장애인시설 입주자와 함께 대전천 수중 환경 정비와인동만세거리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대전현충원, 제40주년 창설 기념행사 국립대전현충원(원장 임성현)은 지난달 29일 제40주년 창설 기념일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충원 추억사진 찍기'와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실시했다.

청양소방서, 청양 고추구기자축제 119안전체험장 운영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지난 30일부터 9일 1일까지 개최된 2019 청양고추구기자축제 행사장에서 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119안전체험장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50여명이 동원됐다.

대전 음식점 조개젓갈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市, 유통경로 등 조사 중… 올해 대전서 1천920명 감염

대전시는 A형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된 조개젓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8월 30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A형간염 환자 중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환자 3명이 공통 이용한 음식점에 대해 조리종사자의 인체검체와 제공음식을 수거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조개젓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관련식당에 대한 위생점검과 함께 칼, 도마 음용수, 김치 등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시는 조개젓갈을 판매한 업소의 유통기한이 동일한 제품의 조개젓갈을 수거검사 의뢰했으며, 종사자에 대한 바이러스검사도 병행 실시하는 등 추가 오염원 조사와 유통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음식점과 관련한 추가환자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환자가 추가 발생할 경우 동일 음식점에서 조개젓갈을 취식하였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하여 접촉자를 관리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일부 A형간염 환자 발생 원인조사 과정에서 A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조개젓갈에서 나온 만큼 식품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유통경로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련제품을 폐기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 중"이라며 "시민들께서는 A형간염 예방접종과 더불어 음식은 조리해서 섭취하고 날 음식은 피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선기자

청양소방서, 우천 속 가상화재 출동훈련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지난 29일 청양군 비봉면에 위치한 한울공장을 대상으로 우천 속에서도 가상화재 출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현장중심의 화재유형별 맞춤형 훈련 적용을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훈련은 소방공무원 23명, 의용소방대 10명, 소방차량 8대가 동원되었다. 훈련 중점사항으로는 ▲현장대응매뉴얼 이행 ▲소방차량 공간확보 및 거점 소방차 적정배치 ▲화재진압전술 및 인명구조훈련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 확보 등 화재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압기법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변경근 현장대응팀장은 "가상화재 출동훈련 등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실제 재난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충남도, 생태테마 투어 프로그램 본격 가동

8월 31일 공주 계룡산 국립공원서 1차 투어 개최

충남도의 생태테마 투어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환경보전의식의 고취를 계몽하고자 충남도는 올 연말까지 계획돼 있는 생태여행지 10선 탐방 가운데 8월 31일 공주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1차 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충남도는 국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내 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을 생태여행지 10선으로 선정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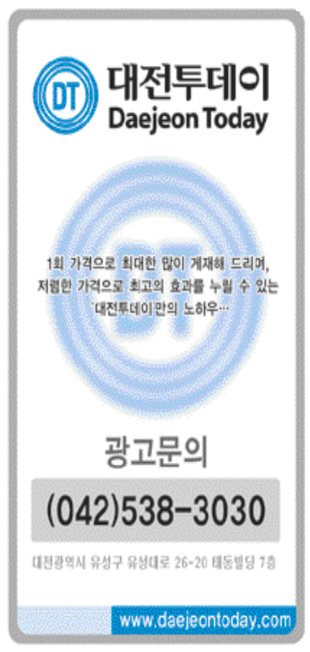
선정한 도내 생태여행지 10선은 ▲논산 대둔산 ▲금산 금강 ▲청양 칠갑산 ▲보령 소황사구 ▲태안 신두리사구 ▲태안 안면도 송림 ▲서산 천수만 ▲서천 금강하구 ▲예산 황새공원 등이다.

이번에 1차와 2차에 걸쳐 선정된 환경전문가, 기자, 여행가, 프리랜서, 학생 등으로 구성된 SNS 홍보단은 블로그(Blog), 페이스북(Facebook) 등 자신이 운영 중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탐사한 생태여행지에서 촬영한 사진·동영상 등을 게재해 전국민을 중심으로 충남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생태여행과 축제·이벤트 등 각종 관련 기사 게재와 홍보단이 여행지에서 느낀 흥미로운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게재하며 충남생태관광의 붐을 조성할뿐만아니라, 개념도 새롭게 재조명되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충남생태여행은 활동 인센티브도 강화돼 여행지 팸투어 제공과 활동우수자 선발 및 포상으로 활성화 지원방안이 추가되기도 했다.

이정복기자



설동호 교육감, NH-Amundi 필승코리아 주식형 펀드 가입

수출 규제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기업 응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설동호 교육감은 8월 30일 대전교육청 농협 출장소에서 NH-Amundi 필승코리아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달 14일 출시된 펀드상품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미래 성장이 예측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이다.

NH농협은 최근 일본의 경제 도발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펀드의 이름을 '필승코리아'로 지었다.

또한, 범농협 계열사가 펀드의 취지에 동참해 초기투자금액 300억원을 제공했으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수익이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를 낮춰 수익률을 높였다.

펀드 가입은 최소 1만원부터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제한이 없고, 많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운용보수를 낮춰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 보수의 50%를 공익기금으로 적립,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장학금 등으로 운용된다고 한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기업을 응원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서고 총체적 위기 상황을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의미로 펀드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아산시,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계획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9월 2일부터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반을 투입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려견 목줄미착용 및 배변미수거, 동력장치 출입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의 경우 5만원이며,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상행위 7만원, 동력장치를 이용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공원을 이용하면서 모두가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상대의 입장에서 공공예절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세종시,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7.1기준 3,157필지 대상…심의 후 10월 31일 결정·공시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3,157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2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일사편리(http://kras.sejong.go.kr)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서면(우편·FAX),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지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김태선기자

당진소방서, 무각본 합동소방훈련

신평 의용소방대에서 참여해 초기대응 큰 역할

당진소방서는 지난 8월 29일, 신평면 소재 동양플랙스에서 무각본에 의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신평의용소방대에서 참여해 초기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

훈련은 각본 없이 불특정 장소에 포그머신(연막) 작동시켜 동양플랙스의 직원들이 신고-대피유도-소화기 진화-환자 대피-옥내소화전 진화-환자 응급조치(CPR) 등 자위소방대 활동을 수행했으며, 신평 의용소방대 다목적 차량의 진압과 환자 대피 유도, 출동한 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진압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훈련을 마치고 신평 의용소방대 119수호천사로 활동중인 최미선, 임경자 대원의 심폐소생술 강의 및 실습도 병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관계인 중심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훈련을 전개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추석 전후 불법쓰레기 배출 집중단속 나서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생활 행복을 위해 추석 전후로 불법쓰레기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주·야간 공무원 불법투기 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추석 전후 1개월 동안 아산시 상습쓰레기투기 예상지역, 하천변 등을 집중 단속해 현장 확인과 함께 CCTV, 블랙박스, 시민제보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매월 깨끗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습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자가 많아 도시미관 및 환경오염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28일 공무원, 배출지도원, 청소대행업체 직원 등 22명이 참여해 불법투기가 많은 배출장소를 집중단속 했다.

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지에 투기한 7명을 적발하고 개인별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클린하우스 시설 점검과 쓰레기 배출 및 수거상태 등도 점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두발 · 복장 · 휴대폰 '학칙 명시' 삭제 중단해야"

한국교총 긴급설문…83% "삭제 반대", 이유는 "학습권 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월 30일 교육부가 두발 · 복장, 용모, 휴대폰 사용 기준 등을 학칙에 기재토록 한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는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는 학칙 기재사항을 명시한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제1항 7호 문구를 일부 삭제하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7호 문구 중 '두발 ·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구체적 예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 · 개정 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교총은 삭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예시 규정이 있는 현재도 인권만 강조하는 조례, 교육청의 개입으로 단위학교의 학칙 자율성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며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근거 규정을 더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서울 · 광주 · 경기 ·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두발 길이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 '두발 · 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복장, 교복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을 둬 학칙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근거 규정까지 없어지면 향후 조례 제 · 개정이 더 확산되고 학칙 자율성은 더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교육청들의 '권고', '매뉴얼'에 학칙 자율성이 더 훼손될 우려도 크다. 이미 서울시교육감은 두발자유화를 선언하고 공문 안내까지 했다. 인천시교육청도 국가인권위 권고를 명목으로 학칙에서 염색 제한 규정을 없앨 것을 공문으로 내린 바 있다. 교총은 "자율로 학칙을 정하라면서 되레 자율을 침해하고 있는데 근거법 조항까지 사라지면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 재정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이 학칙을 수시로 점검하는데 자율이라도 그에 반하는 학칙 제 · 개정에 학교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교총은 "시행령이 구체적 사항을 담지 못하고 선언적 수준으로 개정된다면 변변한 지도 수단을 모두 상실한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지고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27~29일 전국 유 · 초 · 중 · 고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95%신뢰수준에서 신뢰도 ±3.49%p)을 실시한 결과, 83%의 교원이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지도 권한 범위 축소로 면학 분위기 훼손'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P-TECH 공동훈련센터

고숙련일학습병행제 신규 참여 설명회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장우영) P-TECH 공동훈련센터는 지난 29일, 천안공업고등학교 도제학교 3학년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신규 참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천안공업고등학교 도제학교 학생들은 고숙련일학습병행(이하 P-TECH)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학과를 투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우영 학장은 천안공업고등학교 도제학교 학생들을 맞아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며, "도제학교 이수 후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의 P-TECH 과정까지 연계하여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천안공업고등학교 정근붕 부장교사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장우영 학장 이하 P-TECH 공동훈련센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P-TECH 과정에 많은 학생이 입학하여 일과 학업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충남교육청, 8월말 퇴임 교원과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전수식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30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퇴임 교원과 교육공무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말 퇴임 교원과 교육공무원에 대한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전국 최초 음주 및 약물중독 체험안경 대여

대전교육청, 체험중심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위해 대여

대전시교육청(설동호 교육감)은 9월부터 전국 시 · 도교육청 최초로 체험중심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음주 및 약물중독 체험용 안경을 구입하여 희망 학교에 대여한다고 밝혔다.

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체험중심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각급 학교에서는 고가의 음주 및 약물중독 체험용 안경을 구입하여 교육하는 것에 대해 부담되고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경우 안전체험을 위해 직접 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워 체험하는 안전교육을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대전교육청은 이러한 필요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음주 및 약물중독 체험안경 13세트를 구입하였고, 동시에 104명이 체험할 수 있는 물량으로 교육현장에서 언제나 쉽게 안전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꿈 · 끼 탐색 주간 및 학교 보건교육,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학생 교육에 활용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 음주 및 약물중독 체험안경 대여 교육을 통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음주 및 약물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교육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안전은 일상생활이며 몸소 체험하고 느끼는 살아있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당진 순성초, 순성 교육공동체 만남의 날

당진문화원장 유장식 강사 초청 『가정에서의 올바른 자녀 교육』

당진 순성 초등학교(교장 성정순)는 지난 8월 29일 보건교육실에서 2019학년도 순성 교육공동체 만남의 날을 가졌다.

성정순 교장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당진문화원장 유장식 강사님의 『가정에서의 올바른 자녀 교육』이란 큰 주제로 부모로서 지도 역량 갖추기, 가정에서의 우리 아이 지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2학기 학교교육과정 안내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설명과 안내, 청렴,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었고, 학부모들은 안전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위해 서로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려는 마음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당진=최근수기자

제58회 공주시 중'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

학생들의 심미적 인성과 정서순화 위한 음악축제의 향연이 열리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은 지난 30일 공주대학교 음악관에서 제58회 충남 중'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52여명의 학생이 학교 예술교육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표하는 자리로 음악회와 경연대회를 겸하는 종합적인 음악축제다.

개인 종목은 독창과 독주, 양'국악, 창작 등 분야로, 학생들의 심미적 인성을 키우기 위해 특기와 적성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학교에서는 예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성악, 피아노, 기타, 플룻, 비올라, 첼로, 가야금 등 양악과 국악에 대한 이해와 개인적인 기량을 향상해왔다.

본 음악경연대회는 도대회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대회로 개인이 출전하며, 금상수상자는 교육감상을 수상하게 된다.

단체종목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주관하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합창과 양'국악, 합주 분야로, 9월5일부터 6일까지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에서 개최된다.

공주=정상범기자

서부평생교육원, 꿈이 자라나는 도서관 운영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대상

서부평생교육원(원장 박종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2019년 9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하반기 『꿈이 자라나는 도서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원어린이집 등 26개 기관의 956명의 어린이가 참여하며 체험학습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도서관이용방법과 도서관에서 지켜야할 예절을 안내한다. 또 흥미진진한 동화 구연 감상을 통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체험학습에 관한 문의는 서부평생교육원 문헌정보부 ☎661-8351로 하면 된다.

서산=김정한기자

새움중, 항일독립운동 사진 전시회 개최

대한민국 임시정부 발자취 60작품 교내 전시

새움중학교(학교장 이현복, 이하 새움중)는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새움중 교내에서 「3 · 1운동 100주년 기념 항일독립운동 사진 전시회(이하 사진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한중교류문화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발자취」 총 60작품을 전시하여 학생들에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얼을 기리고자 기획됐다.

또한, 8월 30일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애국지사들을 소개하는 내용의 전문가 특강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나라사랑의 정신을 일깨우고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다.

세종=김태선기자

'보령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요리활동

대천동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체 원아 대상 진행

대천동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김영화)은 8월29일에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채소에 대해 알아보고 '무지개 피클' 요리활동을 진행했다.

'식품 속 무지개를 먹어요!'라는 주제로 우리 농산물에 대해 알기, 다양한 채소 종류 알아보기, 색깔 채소를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될까? 등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손씻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위생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아이들에게 채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직접 '무지개 피클 만들기' 요리활동으로 체험해 보면서 평소 잘 먹지 않던 당근, 무, 파프리카, 비트, 오이와 친해 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선생님! 빨리 만들어서 엄마 갖다 주고 싶어요!라며 가족과 함께 먹을 생각에 무척 기뻐했다.

김 원장은 "이번 요리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한 음식 섭취에 대한 생각을 키워줄 수 있고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기자

"청렴한 청양교육! 우리가 앞장선다!"

청양교육지원청, 청렴 캠페인 실시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백운기)은 지난 30일 백세건강공원에서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와 더불어 청양교육지원청 청렴소통 동아리회원과 청렴학부모지킴이 40여명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본 행사를 위해 청렴 스카프와 생수를 나눠주며, 군민과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양교육지원청의 투명하고 청렴한 청양교육 실천을 다짐했고, 부패신고활성화 및 청탁금지법을 홍보했다.

백운기 교육장은 "청렴캠페인을 실시하면서 군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청양교육지원청으로 거듭나겠다."며 청렴'반부패를 실천하기 위해 전 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놀래? 올래? 비래" 2019 비래동 마을축제 지난달29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비래동발전협의회, 비래동행정복지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놀래?올래?비래!" 2019 비래동 마을축제 준비위원회 3차 모임을 실시했다.

재해취약지구 8곳 예방사업 신속 추진

공주시, 4억 원 투입해 소교량과 세천 등 8개소 예방사업 실시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호우와 국지성 호우 시 피해가 예상되는 재해취약지구에 대해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곡면 대중리와 우성면 보흥1리 등 소교량 2곳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침수위험 방지를 위해 교량 폭을 확장하고 가각을 정비할 예정이며, 사곡면 월가리와 우성면 도천리 등 세천 3개소는 호안을 정비해 유수흐름을 원활히 하고 유실위험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어 우성면 상서1리와 이인면 목동리, 오룡리 등 3개소는 사면유실방지와 응급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로 사면과 폭 정비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재해취약지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2차 추경에서 총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오동기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재해취약지구 정비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안전한 공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반기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에 총 6억 원을 투입해 16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시 차량번호인식 업데이트 완료 '총력'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9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번호판 체계의 변경계획에 따른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앞자리 3자리("예" 12가)로는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돼 현행 총 7자리("예" 12가1234) 번호체계에서 8자리("예"123가1234)로 변경되며 비사업용 승용차에만 해당된다.

시는 새롭게 변경되는 자동차 번호판의 도입 및 시행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 언론기관에 홍보는 물론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현장 독려를 진행했다.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대상은 쇼핑몰, 주차장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이용해 건물의 출입을 통제(개폐기)하는 시스템에만 해당되며, 그 외의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시설물은 업데이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관내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는 약73%가 완료된 상태이며, 시는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홍보와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미완료 대상은 조속히 업데이트를 바라며, 완료되기 전까지 차량 출입 개폐기의 수동조작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당진시, 2019년 지방재정 공시

지난해 살림규모 1조 1159억

당진시는 2019년 지방재정공시자료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8월 30일 공개했다.

2019년 지방재정공시는 2017년 결산 기준으로 결산 규모와 재정여건, 부채 등 결산공시 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으로 작성됐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자체수입과 이자재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액을 합한 시의 2018년 살림규모는 1조 1159억 원으로 2017년 대비 342억 원 증가했다.

이는 인구 50만 이하의 유사 지방자치단체 19곳의 평균액인 1조 629억 원보다 530억 원이 많은 수치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시의 자체 수입은 2577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주민 1인 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13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국가와 충남도의 이전재원은 5431억 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5158억 원보다 273억 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돼 시가 국비와 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당진시의 채무는 259억 원으로, 2017년 대비 56억 원이 감소하면서 주민 1인당 지방 채무액도 15만 5000원으로 2017년 대비 3만 3000원 줄었다.

당진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은 살림살이 규모가 크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채무가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자체수입도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편인만큼 점차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서산시 2019년 3분기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실시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생활 주변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숨은 자원을 수거하기 위해 9월 초 운산면을 시작으로 3분기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는 영농활동 후 발생한 폐비닐, 농약빈병 등을 수거해 농촌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각 읍면 동별로 실시되는 행사로, 환경정화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을 통한 마을 소득 증대, 분기별 행사 추진을 통한 주민 화합 등 '1석4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시는 경진대회 활성화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거한 폐비닐, 농약빈병에 대해 주민들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은 킬로그램 당 폐비닐의 경우 A등급 200원, B등급 150원, C등급 100원이며, 농약 빈병은 품목에 따라 유리병 300원, 플라스틱병 1,600원, 농약봉지 3,680원이다.

2019년에는 현재까지 각 마을에 총 1억6천6백만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했고, 각 마을에서 1,114톤의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을 수거했다.

시 관계자는 "경진대회를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청양군 세계고추 · 산야초 품종전시관 운영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이 지난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세계고추' 산야초 품종전시관'을 운영했다.

청양고추는 매운 맛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청양고추보다 200배나 더 매운 고추로 '케롤라이나 리퍼'라는 이름을 가진 이 고추는 2013년 8월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기네스 기록에 올랐다.

축제 방문객들은 이번 축제에서 케롤라이나 리퍼를 비롯해 세계 50여개 나라의 이색적이고 희귀한 고추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전시관에서는 3년생 하바네로 고추, 2년생 청양고추 등이 선을 보이며 1년생인 줄로만 알았던 고추 상식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고 접목고추, 화초고추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특이한 고추 역시 눈길을 사로잡았다.

청양=정상범기자

당진시 농업인 목소리 내년도 농정시책에 담는다

8월 30일 농업회의소와 함께 시책구상 토론회 열려

올해 초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합한 당진시가 2020년 통합 농정 시책구상 토론회를 당진시 농업회의소와 함께 지난 8월 30일 개최했다.

당진시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재로 통합 농정 5개 부서의 자체 시책구상 보고회를 갖고 유사 · 중복 사업을 점검해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그 결과를 반영한 자료를 토대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30일 토론회에서는 ▲여성 · 영세농업인 육성 ▲청년 창농 스마트 온실 조성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조성 ▲농촌 치유 자원 활용 체류관광 상품화 ▲논 이용 다양화 기술보급 ▲귀농창업 마중물 마을 조성 ▲축사 악취 개선 ▲당진 한우 명품화 사업 등 각 부서가 자체 발굴한 2020년 신규시책과 역점시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농업회의소는 ▲농민 수당 도입 ▲논 타작물 재배 ▲야생동물 피해방지 등에 대해 제언했으며, 이에 대한 실행 가능성과 관련부서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당진시 관계자는 "농업인이 원하는 현장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해 당진시 농업의 대표기구인 농업회의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언과 논의사항을 적극 반영한 2020년 시책구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백석문화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실시한 '2019년도 상반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심사'에서 기관평가인증 대학으로 선정됐다. 백석문화대는 심사에서 7개(▲대학의 사명과 책무 ▲교육과정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지원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학생 ▲교 · 직원 ▲재정 및 시설) 모든 영역 '충족' 판정을 받았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교육품질과 책무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선정으로 백석문화대학교는 2023년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한다.

백석대 · 백석문화대 평생교육원

하반기 무료 재테크 특강 열려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 평생교육원은 9월 2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교내 자유관 315호에서 '2019년 하반기 천안시 재테크 특강'을 무료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EBS 랜드프로 인강드림 부동산 경매실무 전임강사 박병섭 교수가 '2019 하반기 천안 아산시 개발계획 분석 및 부동산투자 전망', 부동산투자법인 우리 AMC 김도균 대표이사가 '소액으로 투자하는 보상경매 실전사례 특강'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한다.

특강에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화(041-550-0663, 0664)로 문의할 수 있다.

김정환기자

충청우정청 우체국 펀드판매 1주년 기념 사은행사 펼쳐

판매상품 확대 · 다채로운 이벤트 경품 제공

우정사업본부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해 지난 해 9월부터 전국 223개 총괄우체국에서 펀드판매 사업을 추진했다.

충청지방우정청은 2일 우체국 펀드판매 첫 돌을 기념해 대고객 사은행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판매상품은 공모펀드 중 원금손실 위험도가 낮은 머니마켓펀드(MMF), 채권형펀드 및 주식 비중이 30% 이하인 채권혼합형펀드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안정적이고 판매보수가 비교적 낮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되는 상품 역시 MMF, 채권형펀드 및 채권혼합형 펀드 등 총 8종으로 안정적이며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구성했다.

특히 금리 인하시기에 투자하기 적합한 일반채권형 펀드와 주식 하방 방어력을 갖춘 가치주 · 로우볼(주식 등락폭이 낮은 종목) · 대형주 등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펀드를 추가하여 투자자 선택의 기회를 넓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신규 판매하는 펀드의 운용사와 함께 제휴이벤트를 진행해 신규 가입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사은행사는 2일부터 10월31일까지(2개월) 진행하며, 새롭게 추가되는 신상품(8종)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가입금액별 상품권을 지급하고, 100만원 이상 가입고객 120명을 대상으로 금3.75g(골드바), 축하케이크 쿠폰(3만원상당)을 추가 증정한다. 그리고 기간 내 우체국 인터넷뱅킹 펀드몰을 통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도 받게 된다.

충청우정청 관계자에 따르면 "우체국이 지난 1년 동안 펀드사업을 통해 금융소외지역의 투자접점 확대와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우체국 펀드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펀드를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과 판매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지역 내 총괄우체국이나 우체국 고객센터(1599-1900)

송병배기자

동정

직원 월례모임

오세현 아산시장=2일 오전 8시 30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는 '직원 월례모임'에 참석.

휴양시설 대상지 현장방문

가세로 태안군수=2일 오전 11시 고남초 영항분교에서 실시되는 도교육위원회 충남교직원 휴양시설 대상지 현장방문에 참여.

워크숍

김돈곤 청양군수=2일 오후 2시 홍성군 홍동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시범마을에서 열리는 '마을만들기 실행계획수립용역 합동 워크숍'에 참석.

7년 연속 시 단위 고용률 전국 2위

당진시, 기업투자 활발 · 향후 전망도 밝아…고용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통계청이 지난 8월 27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 결과에서 당진시가 서귀포시에 이어 전국 기초 시 단위 고용률 2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당진시의 2019년 상반기 고용률은 69.2%로, 2018년 하반기 고용률 69.9% 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2013년 처음으로 고용률 전국 시 단위 2위에 오른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7년 연속 같은 2위를 유지하며 고용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향후 당진시의 고용 여건도 크게 나쁘지 않다. 지난해 제5 LNG기지 건설 대상지로 최종 확정된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국가보조금 지원 우대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송산2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국가혁신클러스터로도 지정되면서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LG화학이 석문산단에 2021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자해 미래 유망 소재 생산공장을 건립키로 했으며, 환영철강공업도 2023년까지 3500억 원을 투입해 최신 설비를 갖춘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고,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의 석문산단 투자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호재에 힘입어 2010년 11.9%에 불과했던 분양률은 7월 말 기준 405%로 3배 이상 뛰었으며, 국가기간산업이 올해 말 석문산단 입주를 최종 결정할 경우 올해 안에 분양률 50%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투자로 인한 고용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당진시가 매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미스매치를 줄이고 청년 생활임금제 도입, 청년 창업 활성화 등 청년 계층의 취업과 창업에 앞장서는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대응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유치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도 향후 고용 전망을 밝게 한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태안군 추석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성수품 20종 · 서비스요금 10종 집중관리 나서

태안군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태안특산물전통시장, 서부시장 일원에서 군 관계자 및 태안군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 등 40여 명이 모여 '추석맞이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플래카드, 피켓, 어깨띠 등을 활용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며 추석맞이 물가안정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군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성수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 등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가격표시제 점검 등과 함께 매점매석, 요금부당인상 등 불공정행위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중점 관리에 들어가는 추석 성수품은 ▲농산물 8종(사과, 배, 밤, 양파, 배추, 파, 고추, 마늘) ▲수산물 4종(조기, 명태, 김, 오징어) ▲축산물 4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가공식품 4종(참기름, 식용유, 두부, 밀가루) 등 총 20종이며,

목욕료, 이용료, 미용료, 노래방 이용료, 영화관람료, 피시(PC)방 이용료, 당구장 이용료, 삼겹살, 짜장면, 칼국수 등 10개 품목에 대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도 병행 실시된다.

태안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편승한 성수품 가격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가격 동향을 살피고,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군 축제 맞아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이번 축제를 기회로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 축제를 빛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28일~31일에는 청양군테니스협회 주최로 공설테니스장에서 2019청양고추구기자축제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를 열려 450개 팀 1000여명이 참가했으며, 29일~31일에는 96개 팀 800여명이 참가한 전국게이트볼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했다.

31일에는 제7회 청양군수배 충남그라운드골프대회와 제6회 청양군수기 충남파크골프대회를 충남도내 15개 시군 선수단 500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백세건강공원에서 진행했다.

31일~9월 1일에는 청양군배구협회 주최로 70개 팀 1000여명이 참여한 배구대회를 군민체육관에서 열었으며, 청양군축구협회는 12개 팀 450여명이 출전한 2019청양고추구기자배 축구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했다.

김돈곤 군수는 "방문객들과 군민이 따뜻하게 교류하고 초가을의 농촌 정취를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보탬이 된 아름다운 축제였다"며 "앞으로도 공동체 영역을 넓히면서 행복감을 확산하는 축제의 본래 기능을 잘 살려가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개발정책과 친절서비스 향상 다짐

아산시 개발정책과는 8월 28일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친절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상반기 친절행정 종합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효찬 개발정책과장은 "친절한 민원응대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태안군 3.1운동 민족대표 '이종일 선생' 생가지 종합정비 계획 수립

이종일 선생생가지 주변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올해, 태안군이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1인으로 독립선언서의 인쇄와 배포 등 핵심역할을 수행했던 이종일 선생의 생가지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군은 지난 30일 군수 집무실에서 가세로 군수, 군 관계자, 용역사 등이 모인 가운데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을 맡은 '㈜그리네'는 이날 보고회에서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종합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으로 ▲이종일 선생의 업적과 생애 재조명 ▲이종일 선생 생가지의 본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정비계획 ▲체계적인 공간계획과 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계획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문화거점으로 육성 계획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생가지 외부 담장 철거 및 배수환경 개선 ▲산림산책로 조성 ▲수변구역과 연계한 공간계획 수립 ▲열린 다목적 공간 조성 ▲생가지 중심 상징축선 조성 ▲생가지 진입부 마당공간 조성 등을 검토해 공간 개선방향을 구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 이종일 선생 생가지를 태안의 역사자원 · 주변관광자원 · 디지털 기술활용 마케팅 등과 연계해 많은 이들이 찾고 머물며 이종일 선생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태안의 다양한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읍 군내 기관 · 기업 방문해 전입혜택 적극 홍보

청양군 청양읍(읍장 최율락)이 군내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전입지원 혜택을 적극 홍보하며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인구증가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반기 충남도립대 해오름축제장을 찾아 대학생 30여명의 전입신고 성과를 거둔 청양읍은 8월부터 칠갑농산, 락희스틸, 매일유업, 한국전력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다.

청양읍은 현장 근무자가 많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적용하고, 각 기업도 전입지원정책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SNS를 통해 전파하는 등 협조를 다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도 체류지 주소 변경을 통해 전입이 가능함을 알리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 청양지사에는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부스를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청양읍은 2018년 1월 2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전입축하금, 난임부부 지원금,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재육성장학금과 도립대 기숙사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최율락 청양읍장은 "청양읍 인구증가는 전체 청양군 인구증가의 주춧돌"이라며 "직원들과 이장단, 기관단체장들이 합심해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청양읍 전입혜택이 궁금한 사람은 읍사무소 민원팀(940-4122)이나 총무팀(940-4102)에 문의하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안내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작업을 마치고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을 진행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 합병 등을 한 토지이며 총 3,423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을 통해 볼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및 의견제출 사유 등을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관리과 등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540-2289)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당초 조사 · 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10월18일까지 개별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 · 공시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의견제출 신청기간 동안에 감정평가사와의 적극적인 현장면담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상담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미리 전화 등으로 통지하면 상담일정을 잡아 현장에서 상담 및 안내가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540-2588, 2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모유수유 건강아 선발대회 열려

당진시, 우리 아이의 건강 비결은 모유수유

당진시 보건소는 모유수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8월 29일 오후 설악웨딩홀에서 제24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995년 시작해 전국의 보건소 주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번 대회에는 1차 심사를 통과한 4~12개월 된 당진에 거주 중인 모유수유 아기 43명과 가족,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9일 본선 대회 심사는 김동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심미경, 채경숙 신성대 간호학과 교수, 이효정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가 맡아 성장발달, 인지발달, 엄마와 아기의 애착도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참여자 모니터링을 통해 대회전에 신체계측과 신체발달 등 1차 심사를 진행해 심의 시간을 단축했다.

심사결과 황보시윤, 임규린 아기가 으뜸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원서현, 문서현 아기가 버금상을, 정상윤, 안소민 아기가 각각 보람상을 받았으며, 수상자 중 생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황보시윤, 원서현, 정상윤 아기 3명은 9월 5일 아산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당진시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대회는 심사시간 동안 아이들의 지루함을 달래줄 레크리에이션과 이유식 만들기, 가족사진 촬영 등 이벤트 부스가 함께 운영돼 아기와 가족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이제 대전에서 버스 수락계곡 간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30일부터 대전시 21번 버스노선을 대둔산 수락계곡까지 7㎞ 연장하고 1일 30회 왕복 운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연장개통을 기념하고자 30일 벌곡면 수락계곡 일원에서 황명선 논산시장 외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갖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존 대전시 21번 시내버스는 대전 서남부터미널을 출발해 가수원, 기성동을 거쳐 논산시 벌곡면 대덕리 마을회관까지 운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7㎞를 연장해 대전에서 수락계곡까지 시내버스 한 번 탑승으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번 노선 연장은 대둔산도립공원 중심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양 지자체 간 협의한 것으로, 대전시는 노선 연장을, 논산시는 기존 동일 구간 노선을 폐지함에 따라 이뤄졌다.

첫 수락계곡행 버스는 30일 아침 6시 정각에 출발했으며, 앞으로 평균 70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선 연장이 이뤄지게 된 것에 매우 보람차고 기쁘다"며 "대전에서 한 번에 수락계곡으로 오게 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관광 사업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제11기 충남학 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계룡시, 10월 8일부터 지역의 역사·문화 교육

계룡시는 오는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제11기 충남학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충남학 프로그램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 고취를 위해 충청남도 및 계룡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물 전반을 이해하는 인문학 강좌로 지난 2014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되고 있다.

이번 충남학 제11기는 계룡시민 40명을 대상으로 계룡보훈회관에서 매주 2회(화, 목), 총 8차시에 걸쳐 이론과 답사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강사를 초빙해 ▲충남유학의 학맥과 학풍 ▲충남의 영산, 계룡산 ▲충남이 고건축 ▲충남 여성문인과 문학 등 지역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계룡시 자치행정과 교육협력팀(042-840-2133~2134)으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혈관 숫자를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논산시, 제6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주간행사 전개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주간행사를 추진한다.

'혈관 숫자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혈관이 젊어야 건강 100세!'란 테마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과 캠페인을 통한 메시지 확산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행동변화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논산의 고혈압 유병률은 지난해 34.8%로 전국 평균 26.5%에 비해 8.3%높았고, 당뇨 유병률도 14.3%로 전국 평균 10.7%에 비해 3.6%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소그룹 교육 ▲찾아가는 건강체험관(레드서클존)운영 ▲부적노인대학 등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건강강좌 운영 ▲다중 집합장소 순회 캠페인 전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자기 혈관 숫자 알기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3~40대 연령층을 위해 기업체를 방문, 혈압·혈당·체지방·혈관나이 등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술·담배 줄이기, 운동하기 등 '9대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군 세무 민원서비스 원스톱 제공

지난 29일 논산세무서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MOU 체결

부여군(군수 박정현)과 논산세무서(세무서장 홍철수)는 지난 29일 부여군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현 부여군수와 홍철수 논산세무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부여군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에 따른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세무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망 개설 및 사무기기 설치 ▲양 기관의 공무원 각 1명 이상이 상시 근무 등

세무민원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내용이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군민회관 2층에 별도로 운영되던 논산세무서 부여민원실을 같은 층에 있는 구 법률구조공단사무실로 확장 이전하여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국세와 지방세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 운영으로 납세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민원실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상담, 고지서 발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군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했던 납세 관련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국세·지방세 세무행정 서비스를 통합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9월초부터 부여군민회관 2층에 통합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개시하여 10월초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10월 중순부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시범 운영하여 운영상 문제점과 보완대책 등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부여=김성구기자

기량 있는 서예가들의 무대 서예 휘호대회 열려

논산문화원(원장 권선옥)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시 논산문화원에서 제30회 논산시 서예 휘호대회를 개최한다.

논산문화원(원장 권선옥)과 논산시서예협회(회장 박희성)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고와 대학생 및 일반부로 나눠 전서·해서·예서·행서·한글·문인화·캘리그래피(신설) 등의 부문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9월 27일까지 이메일(nonsan2395@kakao.com) 및 팩스(041-732-2394) 또는 논산문화원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추후 논산시서예협회 초대작가 책임 심사를 거쳐 논산문화원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11월 중 개최하는 논산시서예협회 회원전에서 시상식을 갖고 입상 우수 작품을 전시한다.

권선옥 문화원장은 "기량 있는 서예가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술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논산 서예 발전과 서도 문화 저변 확대, 나아가 논산의 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서예휘호대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문화원(041-746-6967)으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시 하반기 민방위 보충 교육 실시

오는 9월 19일 민방위대원 1~4년차 집합교육, 대원 역량강화

계룡시는 상반기 민방위교육에 불참한 민방위 대원 476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계룡대가 위치한 지역 특성상 현직군인이 많아 민방위대가 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적지만 국방도시 계룡에 걸맞은 역량 있는 민방위대원 양성을 위해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지역민방위대 및 직장대 1~4년차 대원의 집합교육은 오는 9월 19일(목)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룡문화예술의전당 3층 시청각실에서 실시된다.

교육은 민방위제도 및 대원의 임무, 역할과 화생방, 지진대피훈련 등 각종 재난과 안전 대응에 중점으로 두고 이론과실습으로 진행된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비상소집훈련 대신 시청 홈페이지에서 스마트 민방위 교육 배너를 클릭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kr)을 검색하여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또 교육당일 장기출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계룡시 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체류 지역의 교육일정에 맞춰 현지 교육을 받으면 되고, 2년차 이상 대원은 전국단위 민방위 날 훈련(9월 25일, 10월 30일)에 참여해도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

시는 민방위 대원에게 소집통지서를 직접교부, 등기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고, 교육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 면·동 민방위 담당자로 구성된 교육지원팀을 운영해 대리참석, 지각, 중도퇴장, 기타 일탈행위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

부여서동연꽃축제 올해 대한민국 빅데이터 굿마케팅 대상 수상

전문기관 빅데이터 분석결과 마케팅이 가장 뛰어난 축제로 인정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29일 서울 KT 올레스퀘어에서 개최된 2019년 제2회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에서 부여서동연꽃축제가 '굿마케팅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은 전국 1,000여개의 지자체 축제 중에서 KT 빅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절차와 전문기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실시한 국내 최고의 빅데이터 시상식이다.

부여서동연꽃축제는 축제의 구성과 운영 면에서 매우 탁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 마케팅 전략과 연계하여 부여지역 문화관광과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특히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지난 7월 5일부터 '궁남지 사랑, 연꽃의 빛을 발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서동연꽃축제는 SNS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이 퍼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대 최대인파가 축제장에 몰리면서 대성황을 이룬바 있다.

특히 올해 서동연꽃축제는 '천화일화 연꽃 판타지 쇼'를 대표 프로그램으로 내세우고 ▲상설 ICT 연꽃주제관 ▲연꽃과 빛의 향연(경관조명) ▲연지 카누체험 등 다양한 킬러콘텐츠들을 발굴해 각종 포털사이트 및 SNS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등 축제 기간중 계속 이슈화되었다.

부여=김성구기자

서천군 '제6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동상 수상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제6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의 경관·환경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자체의 마을 만들기 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취지의 행사이다. 서천군은 경관·환경, 소득·체험, 문화·복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분야 중 경관·환경 분야에서 느림보마을(판교면 흥림2리)이 출전해 3위로 동상을 받았다.

흥림2리는 지난 7월 '산, 물, 바람, 시간도 쉬어가는 느림보 마을'을 주제로 더불어 사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 경관 가꾸기 등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추진한 내용을 발표해 '도 콘테스트 우수마을'로 충남도 평가 1위를 했으며, 이번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충남도 대표로 참가했다.

흥림2리는 흥림저수지 주변에 위치해 관광객과 낚시꾼이 버린 쓰레기로 마을 경관이 훼손되는 점이 큰 문제여서 주민들은 이에 경각심을 느껴 해바라기를 식재하고 축제를 개최해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고 화합을 도모해왔다. 이런 마을 자체 개선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퍼포먼스 공연을 선보여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동상을 수상했다.

동정

월례회의

황명선 논산시장=2일 오전 8시 30분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월례회의에 참석.

직원만남의 날

최홍묵 계룡시장=2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직원만남의 날에 참석.

착수보고회

노박래 서천군수=2일 오전 10시 30분 반공오열사 묘역에서 열리는 제69주년 반공오열사 추모제에 참석, 오후 2시 서천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운영방안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

장항선셋페스티벌 상상 공유회 열려

서천군, 청년기획가·주민창작가 함께 만들어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30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장항선셋페스티벌 상상(相上)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유회에는 장항선셋페스티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청년기획가 그룹과 주민창작극 등을 진행하는 주민창작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유회는 장항선셋페스티벌을 만들어 가는 참여 단체와 주민들이 서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주체별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업을 통해 장항선셋페스티벌을 누구나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은 서천상상 공유회를 3부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준비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프로그램 간 연결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등 모든 참석자의 생각을 책상 위에 꺼내 놓고 토론을 이어갔다.

이어진 서천상상 네트워킹에서는 창작문화축제로서 장항선셋페스티벌이 가져가야 할 방향성과 축제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돼, 다양한 분야의 전문창작가와 지역의 주민창작가가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협력적 관계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2일 차에는 축제 현장을 방문해 프로그램 진행 방법과 이동 동선 등을 점검하며 프로그램 간 연결방안을 확인했다.

정해순 문화체육과장은 "창작문화축제라는 새로운 장르의 축제를 준비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청년기획가와 많은 주민창작가가 함께해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장항선셋페스티벌이 창작문화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항선셋페스티벌은 서해의 아름다운 노을과 근대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장항에서 펼쳐지는 골목형 창작문화축제로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선셋아트창고, 선셋 콘텐츠마켓 999, 선셋 라이브뮤직 페스티벌, 장항아트스트리트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장항도시탐험역과 도선장 사이의 골목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동 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김정섭 공주시장= 2일 오후 2시 공산성방문자센터 등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주간 현안 보고

김동일 보령시장 = 2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주간 현안 보고, 오후 1시 30분 도비 확보를 위한 충남도청 방문, 오후 4시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9월 중 직원모임, 오후 5시 30분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열리는 공립동대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 참석.

장애인 단체 실무자 간담회

맹정호 서산시장= 2일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에서 열리는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개소식에 참석,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3분기 장애인 단체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

금산예총 미술전시회

문정우 금산군수= 2일 오전 11시 청산아트홀서 열리는 금산예총 미술전시회에 참석.

교육장 취임식 및 월례회의

백옥희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일 오전 9시 공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장 취임식 및 월례회의에 참석한 후 오후 2시부터 유관기관인 공주교대, 농협, 경찰서를 방문한다.

공립동대 초등돌봄센터 개소식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2일 오후 5시 30분에 공립동대초등돌봄센터에서 진행되는 공립동대 초등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

근대문화에 푹 빠진 공주, '문화재 야행' 대성황

지역경제 활성화 · 다양한 볼거리 제공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제민천 일원에서 열린 공주 문화재 야행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민천, 근대에 홀딱 빠지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야행은 지역의 근대 문화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두 번째 마련됐다.

이번 야행은 야경(夜景), 야로(夜路), 야사(夜史), 야화(夜畵), 야설(夜說), 야식(夜食), 야시(夜市), 야숙(夜宿) 등 8夜를 바탕으로 방문객들에게 근대문화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청춘고고장과 근대 변사공연은 관람객들의 흥을 북돋았고, 월야장천과 제민천 퍼레이드, 제민천 근대골목 사진전, 충청감영 근대를 거닐다 등 공주의 근대문화를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독립운동가 등 근대행위 재현과 역사학자와 함께하는 토크쇼 등의 콘텐츠가 보강되면서 주제에 걸맞은 근대적 요소가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정섭 시장은 "올해 두 차례 진행된 문화재 야행을 통해 공주의 근대 문화와 낭만이 다시 한 번 조명 받는 계기가 됐다"며, "공주의 근대문화유적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제민천 일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3년 연속 문화재 야행을 개최해 오고 있는 시는 내년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도전한 상태로, 공주의 근대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주=정상범기자

만세보령 삼광미 골드 충남 우수브랜드 쌀 평가 '최고'

26개 브랜드 중 1위… 식미 · 단백질 등 높은 점수

보령시는 충청남도가 실시한 우수브랜드 쌀 평가에서 보령통합RPC에서 생산되는 만세보령 삼광미골드가 도내 최우수인 1위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우수브랜드 쌀 평가는 육성 품종인 '삼광'의 도내 재배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브랜드 홍보와 인지도 향상을 통한 고품질 쌀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33개 RPC별 대표 26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평가는 RPC별 판매처를 직접 방문해 무작위로 구입하여 쌀 품질 평가 전문기관인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을 통해 품종과 품위, 단백질, 매출액 등 8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만세보령 삼광미골드는 단백질과 계약재배면적, 매출액 등에서 만점을 받았고, 품위와 품종순도, 식미 등 전반적으로 최상위의 점수를 받아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93.7점으로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쌀 품질 향상을 위해 농협과 함께 2010년부터 고품질 삼광벼 계약재배 지원사업으로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삼광단지를 16개소에서 19개소, 계약재배면적을 780ha에서 830ha로 늘리고, 참여농가 또한 GAP 인증 교육을 받은 640농가로 확대했다.

또한 올해 사업비 6억4800만 원을 투입해 삼광벼 40kg 기준 1포대당 4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유전자 분석비용 지원, 종자대 지원, 삼광단지 공동방제, 볏짚 환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의 대표 쌀 브랜드인 만세보령쌀 삼광미 골드는 2015년과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 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 선정에 이어, 올해는 충청남도 대표 쌀 브랜드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품질향상 및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기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추진

공주시, 남녀분리 및 안전개선비용 최대 1천만 원 지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공주시에 위치한 화장실로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 · 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따른 민간 공중화장실 등이다.

시는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및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분리 그리고 비상벨과 안심거울 등 안전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사비의 절반,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며, 시청 환경보호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yuji07@korea.kr)로도 접수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공사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사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을 마쳐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시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 유지혜 담당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민간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며, "공중화장실 건물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우/리/동/네

서산시, 시정발전유공 이임 이 · 통장 간담회

에피소드 · 건의사항 청취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지난달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8.7.1.부터 2019.7.31.기간 중 임기가 만료된 마을 이 · 통장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맹정호 시장은 그동안 지역발전에 힘써 온 인지면 화수1리 최흥엽 이장을 비롯한 이임이 · 통장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이임 이 · 통장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이장 재임기간동안 있었던 에피소드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맹 시장은 "마을 이 · 통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생업으로 바쁘신 가운데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산시 발전을 위해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서산 =김정한기자

식품위생 서비스 · 소방안전교육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달 28일 농업회관에서 농촌관광휴양지 사업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서비스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교육으로 특히, 제 65회 백제문화제 기간 공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숙박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삼성EFR교육센터 강사들이 초빙돼 손님 응대 요령 등 방문객 서비스 개선 교육과 함께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을 위한 심폐 소생술 실습 시간을 가져 열기를 더했다.

또한, 모바일과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연동한 다국어 관광안내 어플리케이션 '공주랑 푸시' 앱에 대한 등록 요령을 교육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교육도 병행 실시됐다.

김일환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주를 방문하는 체험객들이 안전하게 농촌관광체험을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제2회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

금산인삼축제 '상생협력대상' 수상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 스퀘어에서 개최한 '제2회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에서 금산인삼축제가 '상생협력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은 고려대 빅데이터융합사업단, 매일경제,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 BC카드, KT, 다음소프트가 공동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상하는 국내 최초 빅데이터 축제 어워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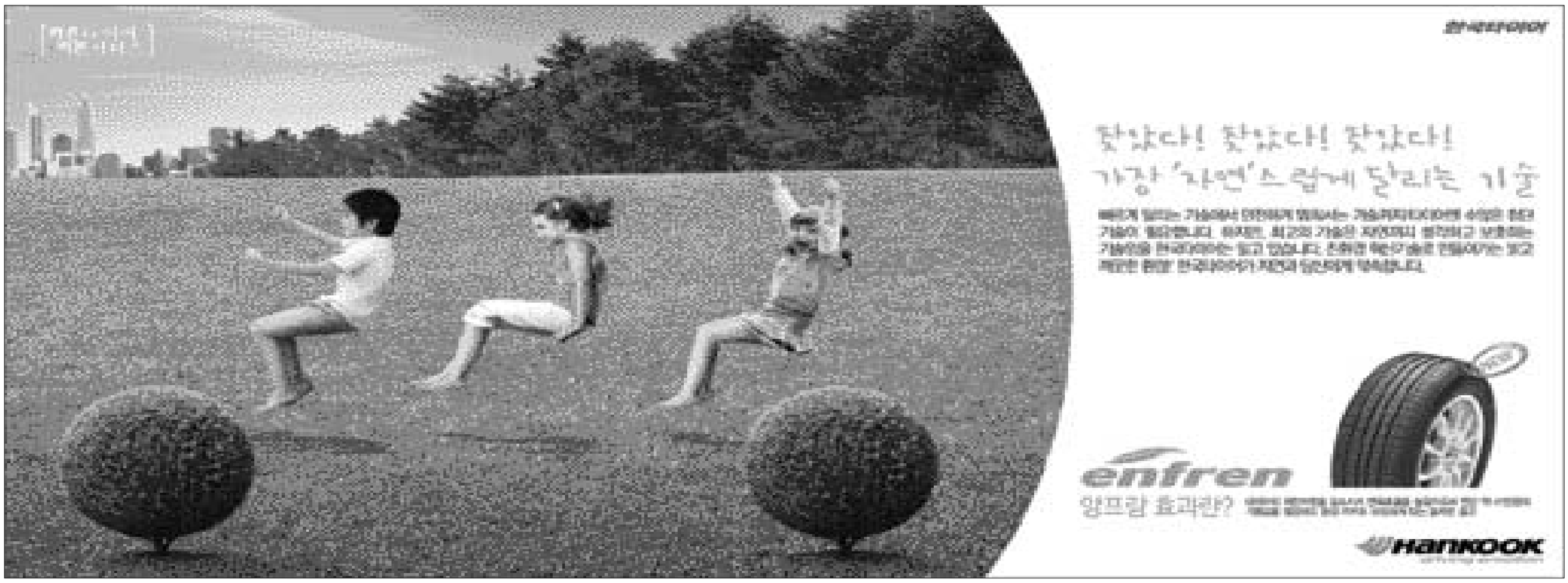
금산인삼축제는 외지 관광객 방문 비율의 증가와 함께 주민 참여와 주민 · 기업 등의 제휴 · 협력관계에 대한 긍정적 감성어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도구인 '축제 절대평가 시스템' 데이터에 기초한 1차 정량평가를 통과하고 전문가의 2차 정성평가를 통해 매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은 값진 결과다.

강흔구 금산 부군수는 "빅데이터로부터 금산인삼축제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금산인삼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대한민국 대표 산업형 축제의 명성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38회 금산인삼축제는 인삼과 건강을 테마로 한 체험, 공연, 경연, 전시 · 교역 등 7개 분야 45개 프로그램을 확정짓고, 민 · 관이 하나로 뭉쳐 관광객 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산=김정환기자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한다

40만명 추가혜택…보호자·계좌 등 변동된 경우 정보 수정해야

9월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했는데, 현재 보호자나 계좌 등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한편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서식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www.ihappy.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만약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아동 주소지로 우편배송되며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해 수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계룡장학재단, 3분기 장학금 6천550여만원 지급

고등학생 70명, 대학생 18명에게 2019년도 3분기 장학금 지급

계룡장학재단 이승찬 이사장(계룡건설 사장)은 지난 8월 30일, 총 88명의 학생(고등학생 70명, 대학생 18명)에게 2019년도 3분기 장학금 6,556만 8,000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2019년도 전체 장학금 1억 9,258만 2,400원 중 일반장학금 제3회분으로써, 지난 1992년 재단 설립이래 이번 회까지 지급된 장학금의 총 규모는 연인원 15,031명 장학금 59억 4,179만원에 달한다.

계룡장학재단은 장학사업외에도 유림경로효친대상, 광개토대왕비 복제비건립, 일본백제문화유적탐사, 백야 김좌진장군 추모, 독도 우리땅 밟기 사업 등 수많은 사회공익사업과 문화사업을 펼치며 선대 이사장인 故 이인구 명예회장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계룡장학재단은 오는 10월 그리기와 글짓기 꿈나무들을 응원하고 학생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제 10회 유림공원 사생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당진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설명회 개최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고 지역 우수 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 위해 열어

당진시가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우수 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30일 (사)충남산학융합원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 신청해 선정된 국비 2억7천만 원, 도비 1억1천만 원을 포함한 총 5억7천만 원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시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는 계속 고용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직업능력 배양, 현장 노하우 습득,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진로설계 및 직업훈련 시스템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을 병행 지원한다.

'당진시 청년 지역 제조업 상생 일자리 사업'의 지원대상은 당진시 거주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로 생산/품질, 기계/설계/, CNT/MCT 직무분야를 우선 선발하고, 대상기업 선발 기준은 당진시 소재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제조 기업으로 사업 선정 시 최대 3년까지 인건비 및 교육,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한다.

당진시 및 충남 산학융합원은 이번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지역 산업인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지역 우수인재에 채용기회를 제공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당진시 청년 지역 제조업 상생 일자리 사업'의 참여기업 및 지역 청년 모집 기간은 2019년 9월 1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업안내는 충남 산학융합원 홈페이지(www.ciuc.or.kr) 및 041-357-8717번으로 문의해 확인 할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4계절 아름다운 백제유적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세요"

홈페이지를 통해 백제역사유적 4계절 영상콘텐츠 제공

(재)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의 4계절을 기록하는 영상콘텐츠를 구축해 유적지구의 기록보존과 함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영상활용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계절변화에 따른 유적의 입체적인 기록을 위해 스틸사진, 동영상, 파노라마 등 다양한 촬영기법과 무인항공기를 함께 활용해 체계적이고 생생한 기록보존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영상기록이라는 점에서 방송미디어 제공에 손색없는 초고해상도(UHD이상) 이상의 품질을 확보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영상콘텐츠 구축은 유적 주요장소에서 고해상도의 스틸사진을 촬영하고 공중에서 유적을 내려다보며 다양한 각도와 구도로 동영상도 촬영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지점의 지상과 공중에서 유적 전경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360도) 파노라마 영상도 함께 진행해 일반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유적의 전경 및 주요지점을 계절별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손쉽게 센터 홈페이지(http://www.baekje-heritage.or.kr/)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계절변화에 따른 유적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유적마다 다양한 위치와 방향으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제공 받을 수 있어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료를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아산시, 추석명절 맞아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운영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확대 운영해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의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시는 추석 전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1회에서 3회로 확대해 휴무일에는 1,600여명에 달하는 시청 공무원(공무직 포함)이 관내 식당을 이용하면서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위축된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식당이용구간은 제1구역(시청~시민로~아고오거리), 제2구역(우체국 온천천 관광호텔 후문), 제3구역(온양온천 시장)으로 세분화해 지정하고 공무원들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서민 경제살리기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 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조기 집행해 지역 상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 위축으로 서민경제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바이올리니스트 박수현 & 첼리스트 조형준 듀오리사이틀 공연

2019 아침을 여는 클래식 여섯 번째 순서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수현 & 첼리스트 조형준의 듀오 리사이틀 공연이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열린다.

세계 최고의 현악기 전문지인 영국의 스트라드와 음악전문월간지 그라모폰, BBC뮤직매거진 등으로부터 개성 가득하고 상상력 풍부한 낭만적 연주라는 평을 듣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수현과 그의 남편으로 2015년 제9회 하이든 실내악 콩쿠르 1위, 리옹 국제 실내악 콩쿠르 2위와 특별상, 2016년 제71회 스위스 제네바 음악 콩쿠르 3위 수상 등 차세대 현악사중주팀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벨콰르텟의 첼리스트인 첼리스트 조형준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솔리스트로 또한 실내악 멤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이날 연주에서 모차르트, 글리에르, 피아졸라, 할보르센, 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곡들을 연주할 계획이다. 결혼한 지 얼마 안되는 젊은 음악커플의 긴밀한 호흡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2005년 시작, 올해로 15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아침을 여는 클래식'은 매 공연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초청, 수준 높은 음악을 들려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정관객층이 형성, 매 공연 객석을 가득채우고 있다. 올해는 8회의 공연이 기획됐으며 지난 7월까지 5회의 공연을 마쳤고 10월 피아니스트 양성원의 리싸이틀과 11월 볼체 콰르텟의 연주를 남겨두고 있다.

송병배기자

계룡시의회 박춘엽 의장, 필승코리아 주식형 펀드 가입 계룡시의회 박춘엽 의장은 8월 30일 오후 계룡시 농협중앙회에서 NH-Amundi 필승코리아 주식형펀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배재대·LG전자, 인공지능 교육·산학연구 개발 협력 체결 배재대학교와 LG전자가 8월 31일 LG전자 창원1공장에서 SW중심대학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AI) 교육 및 산학연구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산시, 충남장애인체력인증센터 개소 아산시가 지난 30일, 장애인체력인증기관으로는 전국 4번째인 충남장애인체력인증센터 문을 열며 민선7기 체육복지 시책인 '1인 1생활체육' 활성화에 가속도를 붙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예산군체육회 신임사무국장 이용만 씨 임명장 수여 예산군체육회(회장 황선봉)는 8월 30일 신임 사무국장에 이용만씨를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예산군체육회는 이번 신임 사무국장 임명으로 전임 사무국장의 사직으로 2개월 이상이어진 업무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

전기안전공사 충남 중부지사, 안전 나눔 봉사활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 중부지사(지사장 조성만)는 지난 8월 27일, 당진시 고대면에 위치한 사랑지역아동센터에서 당진시 사회복지과, 가스안전공사 충남본부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안전 나눔' 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대덕대 국방물자과, 육군부사관 임관식 행사 참석 대덕대학교 국방물자과는 8월 30일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실시한 육군부사관 임관식 행사에 참석했다.

자동차 종합 정비공장 에스더블유기업(주) SW
대표이사 안 경 호
Tel. 042-526-1801 / Fax. 042-526-1833
Mobile. 011-429-4377 / e-mail. kyungho0710@nate.com
www.sw-motors.com

EN.F Total Interior Design 연.에프
대표 손 혁 건
Mobile 010-8422-6946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 추석 앞두고 나눔 실천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지부장 박장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600만 원 상당의 쌀 2000kg을 기탁해 어려운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훈훈한감동을 주고 있다.

제65회 백제문화제 홍보 플래시몹, 서울역 광장서 개최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제65회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8월 31일 오후서울역 광장에서 제65회 백제문화제를 홍보하는 플래시몹(Flash mob)을펼쳐 국내외 관광객들의 눈길을사로잡았다.

한국효문화진흥원 '효문화포럼' 성료 한국효문화진흥원(원장 장시성)에서는 효문화포럼이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전문가들이 말하는 효의 길, 효의 방향, 효의 목표'의 주제로 발표자 12명과참석자 8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아산시, 제1회 전국시각장애인골볼선수권 대회 열려 충남도지사배 제1회 전국시각장애인골볼선수권대회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선발전을 겸한 선수권대회로 전국 10개 시도에서 130명의선수들이 참여해 열띤경기를 치른다.

충남대 육동일 교수 등 18명 정년 퇴임식 개최 충남대학교는 8월 30일 오전 11시,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교원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대전Y-SML포럼과 함께 농촌희망드림 아름다운 농촌마을 벽화그리기 직·공장새마을운동대전시협의회는 지난달 29일 ~30일까지 서구 매노동 농촌마을에서 직·공장새마을운동대전시협의회 운영위원 20명과대전Y-SML포럼 회원 20명이 함께 농촌희망드림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벽화그리기"봉사활동을실시했다.

유병대 전 충남교육연구원장 에세이집 '화제'…행복한 학교 경영사례 모아

'교장선생님을 고발합니다' 에세이집

8월 말로 정년 퇴임한 유병대 충남교육연수원장이 퇴임 기념으로 연수원장 부임 전 학교장으로 근무했던 천북중학교와 홍성여자고등학교의 5년 6개월간의 학교 경영 사례를 에세이집으로 출판해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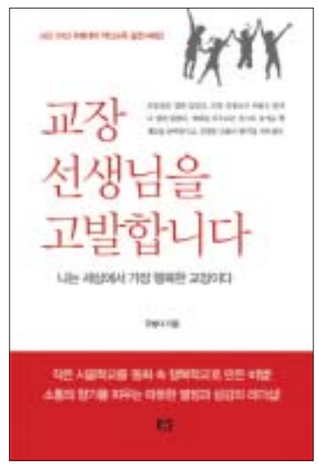
책 제목은 『교장선생님을 고발합니다』이며 부제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장이다'이다.

일반직 공무원 6년을 마감하고 29세 사범대 입학, 33세 신규교사 발령. 교직 생활 정확히 30년. 앞만 보며 오직 아이들 사랑에 헌신한 진정한 교육자로서 소규모 학교인 천북중학교와 서해안 명문 홍성여고에서의 행복한 학교장 경영을 책에 담았다.

천북중학교에서 공모 교장 4년 동안 박토에서 생명을 길러내듯 끊임없이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역의 화합을 위해 발로 뛴 이야기. 혁신학교인 홍성여고에서도 1년 6개월간 학생, 학부모, 지역민과 소통의 향기를 피운 이야기가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 책을 펼치면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저자의 열정적인 아이들 사랑에 빠져들며 자신의 교육철학을 재정립하고 아이들 교육에 큰 도움을얻을 것이다. 교장선생님을너무 사랑해 아이들이 '교장선생님을 고발합니다.'라고 역설적으로 호소하는 이 말에도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고, 교육자는 아이들위해 노력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저자의 말에도 공감할 것이다.

저자는 1년 6개월간 연수원장으로 근무하면서 50대 교사들의 자긍심을 심는 '행복리더 직무연수', '완성기 직무연수' 등을 개발 운영하여 학교 현장으로부터 큰 호응을얻은 바 있다.



이정복기자

심사평가원 대전지원, 지역농산물 구매 등 통한 따뜻한 마음 전달

지역상생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이하 '대전지원')은 지난달 29일 아동복지시설 '돈보스코의집'(대전시 서구 정림동)을 방문, 지역농산물을 후원하고 함께 음식을 만드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대전지원 인근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력해 후원함으로써 사회공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편 대전지원은 추석 명절 전 보건의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벧엘의 집 희망진료센터'를 방문, 환경개선 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행사를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이번 나눔활동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전했다. 송병배기자

윤봉길 의사 스승 최병대 선생 송덕비 제막

제자 등 청양군 청남면 주민들…충효 계승 다짐

석운 최병대 선생의 공덕을 기리는 송덕비 제막식이 지난 29일 청양군 청남면 청소2리 현지에서 석운 선생의 제자들을비롯해 김돈곤 청양군수,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석운 최병대 선생은 1932년 상하이 훙커우공원에서 폭탄투척 의거를 일으켜 세계를 놀라게 하고 민족적 자존감을 널리 과시한 매헌 윤봉길 의사의 12세 시절 한학을 가르친 스승으로 어린 윤 의사가 다시없는 충효정신을 간직할 수 있도록 깊은 영향을 끼쳤다.

10여명의 제자들은 송덕비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소사영)를 구성하고 청양군의 지원을 받아 이날 송덕비를 건립하게 됐다.

예산 출신인 석운 선생의 송덕비를 이곳에 세운 까닭은 윤 의사의 스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일본 경찰의 압제를 피해 청양땅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석운 선생은 윤 의사 거사 이후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해 칠갑산 기슭인 정산면 대박리, 광생리, 학암리와 청남면 천내리, 청소리 등지에서 살았다.

석운 선생은 1962년 청남면 청소리에서 별세할 때까지 30여년간 정산과 청남지역에서 수많은 후학을 양성했다.

김돈곤 군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해에 윤봉길 의사 스승님의 송덕비를 건립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석운 선생님의 학문정신이 제자들을 통해 후세에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제73회 비노 하우스콘서트" 지역예술문화 활성화와 예술인 권리증진에 노력하고 있는비노클래식(대표 구자홍)'은 8월29일 저녁 7시30분, 비노클래식 앙상블홀에서 제73회 비노 하우스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비노클래식'과 비영리 예술단체인 '아트인대전'의 주최로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엘리시아 앙상블>을 초청하여 'Summer Breeze from Elysia'라는 부제로 열렸다.

건보공단 대전본부 '쪽방촌, 여름나기 나눔 활동'

2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여름이불50세트, 쌀 30포대)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대전시 동구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과 안전한여름나기를 위한 '혹서기 나눔 활동'으로 쪽방촌 주민 50세대에게 여름이불 세트 등 2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대전본부는 공단 임직원들의 건강나눔기금을 활용해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의료봉사, 작은공부방(도서관) 개설, 농가일손돕기, 불우보호시설 후원, 취약계층 혹서기 물품후원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펼치고있다.

안희무 본부장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공단은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서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대전도시철도 '열차에서 교향악단 현악5중주 버스킹'

전국 최초, 판암역~반석역 왕복열차에서 큰 호응

31일 대전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전국 최초로 교향악단 현악5중주팀이 버스킹 공연을 펼쳤다.

공연을 펼친 단체는 아산시교향악단(단장 홍원기)으로 2004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추진한 '2019년 신나는 예술여행 공모 사업'에서 공연팀으로 선정돼 대전과 세종, 충남북에서 찾아가는 버스킹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7월부터 교향악단과 12월까지 열차와 역사에서 매월 버스킹 공연을 개최하기로 하고 이번 열차 버스킹은 대동역, 대전역에 이은 3번째 공연이다.

공연은 바이올린 김유리씨가 장르와 무대마다 쉬운 해설을 곁들이면서 진행됐고 뉴에이지, 영화음악, 보사노바,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주옥같은 곡을 연주해 도시철도 이용고객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으며 15시 판암역발 반석행열차와 15시 50분 반석역발 판암행 열차에서 2회 진행됐다.

대전역에서 승차해 갈마역에서 하차한 전인경 고객(월평동)은 "예술의 전당에서 볼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이었고 시민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참 인상적"이었다고 공연 소감을 밝혔다.

대전도시철도 신나는 예술여행을 기획하고 있는 공사 고객운수팀 이경하부장은 "교향악단 5중주팀의 열차 버스킹은 전국 도시철도에서 최초일 것"이라며 "대전방문의 해 여행객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고품격의 문화공연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교향악단 현악5중주팀의 대전도시철도 다음 버스킹은 9월 4일 11시 젊은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앙로역서 펼쳐진다.

김태선기자

서산팔봉초, 1社1校 협약체결

서산 팔봉초(교장 최윤이)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대산공장(공장장 문희순)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사1교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산업체가 함께 상호협력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1사 1교 협약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대산공장은 학생들의 행사 및 교육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고, 팔봉초등학교는 학생,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각 영역별 행사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서산=김정한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대투 논단

김헌태 논설고문

2019 가을단상

벌써 9월이다. 추석이 13일로 다가왔다. 올해는 추석이 참으로 빠르다. 오는 23일이 추분으로 본격적인 가을이지만 9월이 시작되면서 결실의 가을은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 가을의 전령사인 코스모스는 벌써 피어 가을을 먼저 알리고 있다. 달력을 보면 2019년도 이제 넉 장 밖에 남지 않았다. 세월이 참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요즘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간과 순간들이 엊그제인 것 같이 지나가고 있다. 태풍도 잦았고 비도 자주 내렸다. 조석의 서늘함을 피해 무더위는 여름과 함께 물러가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추석이 있는 가을은 빡빡한 삶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에 모두가 가을을 좋아하고 가을의 넉넉함을 만끽하고 있지 않나 싶다.

이 좋은 가을에 일부 대학가는 집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웬만한 일에는 들고 나서는 일을 자제하던 대학가에서 정치권의 인물을 꼬집어 집회를 열고 성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조국법무부 장관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하여 이곳저곳에서 벌집 쑤신 듯이 난리가 아니다. 심지어 검찰마저 압수수색까지 나서자 국민들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있다. 과연 그 진실이 정의롭게 밝혀질 것인가 아닌가가 이제 검찰의 몫이 되고 있다. 칼자루에서 칼을 뽑았다면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반응들이다. 특히 사퇴압력이 거센 가운데 역설적으로 힘을 내세요라며 지지집단의 움직임이 등장해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순위 1위까지 올리는 것을 보고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놀라움을 모두가 가졌다. 여야나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엄청난 의혹에 휩싸인 인물을 두고 힘을 내라고 하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리는 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비정상과 편법과 탈법은 나라를 부패시키고 미래 동력을 앗아가는 악질적인 요소들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정상적인 사회와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늘 귀가 따갑게 들어온 이야기가 있다. 소크라테스의 말인 즉 "악법도 법이다"란 말이다. 독배를 들고 삶을 마감한 이 유명한 말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되새겨 보아야 할 금과옥조와 같은 말이 아닌가 싶다. 오늘날 법이 얼마나 세분화되어 잘 만들어졌는지 놀라울 정도이다. 변천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고쳐가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이지 권력자가 법과 질서 위에서 군림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요 독재로 가는 길이고 망국의 길임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어린아이들조차 신호등을 지키고 준법정신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교육의 길이다. 하물며 법을 공부하고 법을 만드는 사회지도층들이 법과 질서를 우습게 알고 이를 무시하고 숨어서 교묘하게 탐욕스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표리부동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법전서 즉,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사회와 나라가 운영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육법전서를 달달 외우고 나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더 큰 범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법 이전에 상식과 도덕,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는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전직 대통령들이 법을 어겼다고 탄핵하고 단죄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단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잣대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의 잣대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들이댄다면 이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지도층이나 서민이나 낮은 사람이 없다. 모두가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용되고 있는 도로교통법도 요즘 인정사정이 없이 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른바 과태료이다. 과태료(過怠料)란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이다. 주차위반만 해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 고지서에 꼼짝없이 돈을 납부해야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참으로 황당하고 잠깐 사이에 3만 원 이상 9만원도 물어야 하니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라고 한다. 길거리에서 먹고 사는 서민들은 수시로 당하는 사례이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겪는 실물고통이다. 하물며 사회지도층들의 범범 행위나 탈법 행위야 말로 그에 상응한 무거운 책임이 더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법을 어기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자연의 순리도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2019년도 어김없이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그 누가 이런 순리를 거스를 수 있을까 싶다.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명심보감 천명편에 나오는 맹자의 말이다. 한마디로 공직자의 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도리를 따르는 것은 순리(順理)임에 분명하다. 법과 질서, 정의와 도덕, 상식을 벗어나는 역리(逆理)는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며 이를 거스르는 자는 결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수한 사례를 접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접하고 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역천자(逆天者)에 다름 아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왔다. 가을이 왔는데도 여름이라고 주장하고 이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무지몽매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자연의 순리를 삶속에서 터득하며 살고 있다. 가을 속에서는 지난여름 무더위와 태풍을 견디며 이겨낸 무수한 결실이 그 모습을 풍요(豊饒)라는 자랑스런 이름으로 보여준다. 진정한 결실이다.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결실을 보여준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이다. 인과응보(因果應報), 사필귀정(事必歸正), 자업자득(自業自得)인 것이다. 모든 일은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면 언젠가는 천벌을 받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가을이 왔는데도 가을이 아니라고 우겨대거나 흑백을 구분하지 못하고 낮을 밤이라고 하고 밤을 낮이라고 한다면 이를 정상적이라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순리가 무엇인지를 2019년 이 가을이 그 어느 해 가을보다 명료하게 깨닫게 하고 있다.

사 설

디지털 무인화에 불편 겪는 노년층

디지털 기기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일하던 자리에 무인시스템이 대체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뜩이나 취업난 시대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불편과 부담이 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볍게 햄버거 하나 사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다른 고객에게 부탁하거나 직원에게 가서 주문해야 구매가 가능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편리와 신속함을 위해 도입된 기기가 일부 연령층에는 큰 장애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은행이나 극장, 기차 예매도 노년층에게는 커다란 벽이다. 창구 직원이 줄어들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좌석표를 예매하지 못해 입석으로 기차를 타는 노년층도 꽤 있다.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예매가 일반적이어서 역 창구에서 좌석표 사기가 어려운 것이다. 결국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장거리를 서서 가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부터 좌석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수원의 공항버스 정류장에서도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모바일 예매로 바뀐 것을 몰라 버스를 타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티켓을 구매하고 좌석을 지정해야하는 데 홍보 부족으로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앱을 설치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이를 복잡하고 귀찮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정류소에 따라 무인발권기가 마련된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이다. 좌석을 예매하면 미리 나와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편리함이 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은 시대의 대세이다. 어느 연령층에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기 사용법을 홍보하고 가급적 단순한 구조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무인포스기로 물건을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한 식당가는 이미 무인포스기가 직원을 대체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하지만 잘 익혀서 편리하게 사용하려는 적극적인 마음자세도 필요하다. 기기 사용이 서툰 사람들을 위해 무시나 핀잔이 아닌 친절하게 이를 설명하고 도와주는 직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무인화 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노년층이 기기 사용에 소외되거나 정보격차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간접 체험 교육, 글자크기 확대 등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노년층도 무조건 거부하거나 무방비로 있기보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히려는 도전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행복도 설문에 반영된 부정적 결과

우리나라 국민인식과 관련한 설문에 전 연령층에서 행복도보다 불행도가 훨씬 높게 나왔다. 특히 청년층이 심각한데 응답자의 73.4%가 청년층이 불행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의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이는 청년층 스스로가 느끼는 행복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느끼는 행복도란 점에서 객관성이 있다. 청년층만 응답했다면 훨씬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청년층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 심각한 취업난의 영향이 크다. 연애, 결혼, 출산의 3포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들의 미래가 암담한 현실이다.

최근에는 다포세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내 집 마련, 자동차 구매, 심지어 희망까지도 모두 포기하는 세대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니 청년층이 느끼는 암담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취업이 안 되니 혼인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평균 초혼 연령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당연하게 출산율도 크게 떨어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아이들의 행복도를 묻는 질문에도 52%가 불행하다고 응답했고, 노인의 경우도 59.2%가 불행하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전 연령층 과반수이상이 불행하다는 것이어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지원이 필요하고 노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80%가 넘는 동의가 나온 것도 바로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불행도가 극히 높은 데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이미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도 44% 가량이 빚을 가지고 있으며 월 평균 60만 원 정도의 빚을 갚고 있다는 것이다. 30대 가구주의 경우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는데 이는 저축보다 빚이 많다는 의미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행복도가 높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5060 세대들은 대학 입학은 어려웠지만 졸업만 하면 거의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다.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자녀 세대가 처음 등장한 것이다. 청년층의 행복도가 올라갈 때 노인층의 행복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 행복보다 불행을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국가의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어느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기 고

광통신 일본부품 대체… 국산화 추진 현황과 방향

이 영 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지능형인프라본부장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발동했고, 8월 28일부터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민 · 관 모두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현황 파악과 더불어 소재 · 부품 공급 다변화 등 대비에 나섰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무역 충돌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2017년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한 감정과 더불어 보복 조치로 인해 관광과 소비재 유통에 직격탄을 맞았었고,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해를 넘어서고도 지속되고 있다. 'American First'를 실천하는 미국을 비롯해, 브렉시트를 시작으로 유럽 또한 국수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의 지지도가 상승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는 반(反) 세계화 물결이 국제자유무역 질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직접적 타격을 받아 그 충격이 컸을 뿐, 앞으로도 직 · 간접적으로 반 세계화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입 · 수출 비중이 각각 31.27%(21위), 37.49%(23위)로 콜롬비아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수출입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며, 비중이 가장 낮은 미국은 각각 12.41%, 7.97%, 두 번째로 낮은 일본은 13.78%, 14.33%로, 미국과 일본에 대비하여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겠지만, 내수비중이 비교적 낮은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외교 · 무역 갈등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내수강화와 핵심소자 · 부품을 포함한 기초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또 논의돼 왔었다.

광통신용 소자 · 부품 분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광통신 부품은 통신용 광소자, 수동 · 능동형 부품, 통신용 광섬유 등이 있으며, 광모듈은 광(光)-전(電) 신호를 상호변환하는 광소자를 활용한 광송수신부 및 제어회로로 구성된 완제품을 의미한다. 국내 통신사업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국산 광모듈 제품을 많이 사용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안정성과 고품질을 요구하는 광모듈의 경우에는 품질 수준이 높은 일본 광소자가 적용된 제품을 선호하며, 국내 광모듈 제조업체도 그에 맞춰 고품질 광모듈 생산 시에는 일본산 광소자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광모듈은 저가를 내세운 중국 제품이 강세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기술 확보만이 장기적으로 우리 광통신 모듈 · 부품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광통신은 폭증하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른 향후 미래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공통 기반으로,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 리서치 · 컨설팅 업체인 오범(OVUM)은 전 세계 광통신 부품 시장 규모를 2018년 약 100억 달러에서 2022년 1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OVUM 2017)

광통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광통신 관련 기업의 현황은 어떨까? 한국광산업진흥회의 '2018년 광통신 품목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광통신 관련 기업의 75% 이상이 광통신 부품을 주력분야로 응답했으며, 90% 이상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종의 약 73%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것에 비해, 광통신 분야 기업의 연구소 보유 비중은 84.4%로 높게 나타났다. ([출처] '2018년 光산업 현황 및 2019 전망', 2018년 한국광산업진흥회.) 광통신 산업은 장기적인 연구활동이 기업의 생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선진 광모듈 생산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한 부품 공급체계 수직계열화로 경쟁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다. 그 예로, 2018년 12월 미국 광부품 공급업체 루멘텀(Lumentum)은 광통신 솔루션 기업인 오클라로(Oclaro, 오클라로는 2012년 히다찌(Hitachi)에서 분리된, 광소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Opnext와 합병했다.)를 인수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광통신 부품 상용화 지원 사업을 통해 광소자 · 광모듈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구개발에 힘쓰는 국내 중소 광통신 부품 기업들이 각자 차별화 된 다양한 제품들을 적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상용화 등 새롭게 등장한 내수시장을 선점하고, 그 수익을 원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보호무역, 인수합병 등의 외부 악조건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돕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성능, 안정성을 고려해 일본 소재를 많이 활용해왔고, 가격경쟁력을 우선으로 부품 라인업을 형성하는 등 국내 기업에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09년 Giga인터넷 사업을 시작으로 통신서비스사-통신장비제조사로 연결되는 대중소 기업 협력모델을 통해 기술력있는 국내 통신장비사를 지원해왔고, 올해부터는 이를 광통신 부품 분야에도 적용해 통신서비스사-통신장비제조사-광통신 부품사로 연결되는 광통신 부품의 시범망 적용 · 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무역 갈등을 제대로 경험한 대기업들이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의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 ·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이를 관에서 정책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공주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위한 1차 현지실사 마무리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1차 현지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시에 따르면,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장이자 실사단장인 조준필 아주대 교수 등 실사위원들은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시청 외 4개소(공주경찰서, 공주소방서, 보건소, 안전체험공원)에서 총괄보고 청취와 재난안전, 교통안전, 어린이여성청소년안전 등 국제안전도시 7개 공인기준 적합 여부를 살펴봤다.

시는 2016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이후 새롭게 발굴한 분야별 안전증진사업을 중점 보고하고, 그 동안 추진한 6개 분야 265개의 안전증진사업을 비롯해 지역안전수준 진단과 관련 조례 제정 등 안전도시 사업 기반 마련 성과를 설명했다.

시는 이번 1차 현지실사에 이어 9월 영문 공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11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 스웨덴 소재)가 주관하는 2차 현지실사(본실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정섭 시장은 "국제안전도시의 최종목표는 공주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각 기관 · 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각종 손상원인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최고의 안전도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안전도시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롬 선언에 기초해 사고나 손상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7월 기준 40개국 400여개 도시가 공인을 받았고 국내에는 19개 도시가 공인을 받았다.

공주 =정상범 기자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요망.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현정 | 회 장 김성구 |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 기사제보 042)538-1601 |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 광고산청안내 042)538-1603 |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투데이

건양대학교 글로벌호텔관광학과 현장탐방

중부권 최고의 취업실적과 맞춤형취업프로그램 '인기'

▲ 글로벌 호텔 관광학과 학과장 김근종 교수

최근 관광의 붐이 일면서 국가적으로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는 정부시책에 따라 중부권에서 명실 공히 최고의 취업실적과 맞춤형취업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건양대학교 글로벌호텔관광학과를 탐방하여 현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학과의 비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김근종(글로벌호텔관광학과 학과장)교수와 재학생들을 만나보았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학과에 대해 간략히 소개부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근종 교수 :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건양대학교 글로벌호텔관광학과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학과는 역사적으로 20년이 넘었으며 전국의 동문들이 약 1,000여 명이 관광산업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는 실무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관광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교수님께서는 이전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학교에 복직하여 교수의 신분으로 만나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관광산업의 어떤 직종과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근종 교수 : 정부공공기관, 여행사, 항공사, 호텔, 웨딩이벤트 전문회사, 외식업체, 금융기관, 대학원, 해외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졸업생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저희 졸업생들은 매년 10월1일 홈커밍데이를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특별행사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소문에 의하면 글로벌호텔관광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본인이 원하면 일정한 심사를 통해 국내외 호텔에 방학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적극 추천하여 현장에서 실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습을 하나요?

김근종 교수 : 먼저 재학 중 희망하는 학생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하지만 용돈이나 기타 대학재학중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호텔 총지배인을 꿈꾸거나 미래 여행사나 항공사의 간부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별도 선발하여 본인이 원하면 100% 방학 중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을 하도록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 중 1-2개월 동안 본인의 용돈은 물론이거니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접목시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 현장실무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수님들의 이력도 무척이나 중요한데 현재 교수님은 몇 분이며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근종 교수 : 교수님 대부분 모두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실무를 경험한 분으로서 산업체와 연관되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교육프로그램도 70% 이상이 현장실무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현재 글로벌호텔관광학과에는 현장실습실도 갖추어져 있는지요?

김근종 교수 : 현재 학과에는 호텔실습실, 커피바리스타 실습실, 항공발권실습실 등을 갖추고 있고 가능한 방학 중 현장실습을 중점적으로 하고있으며 현장은 서울, 부산, 제주 해외 등 다양한 곳에서 현장실무를 익히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럼 현재 재학 중인 학생과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호텔에서 현장실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문병욱(글로벌호텔관광학과 4학년 재학 중): 저는 4학년에 재학 중인데 지난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현재는 호텔 프런트에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문병욱(글로벌호텔관광학과 4학년 재학 중): 호텔에 손님이 처음 도착했을 때 체크인과 체크아웃, 예약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이 호텔리어의 꿈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보다 더 큰 꿈을 꾸어 미래에는 호텔의 최고경영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바람입니다. 저는 반드시 제 꿈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사회자 ; 그럼 이번에는 ㈜하나투어에서 개최한 하나투어 챌린지 프로젝트에 합격한 정수현(글로벌호텔관광학과 4년 재학)양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소개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정수현 : 저는 글로벌호텔관광학과 4학년 재학생으로 하나투어에서 실시하는 투어쵈린지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부탄과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하나투어의 참여형 국내외 탐방 장학사업인 투어쵈린저는 하나투어문화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전국 대학교에서 선발된 최종 22명의 장학생이 참여해 6월 27일부터 7월6일까지 국내연수를 비롯해 부탄, 인도 탐방을 하였고 현재 ㈜하나투어와 부탄 지역 여행상품 기획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있습니다. 실제 대학에서 여행관련 실무지식을 익혀 현장에 나가 여행전반에 대한 직간접경험을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만족하며 향후 졸업시 세계여행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전문가가 꿈입니다.

사회자 : 글로벌호텔관광학과에서는 이것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커피바리스타도 관심을 많이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인소믈리에 자격증과 CRS (항공예약발권시스템)자격증 두 개를 취득한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죠.

방선아(글로벌호텔관광학과 2학년): 저는 재학 중 학교에서 실시하는 전공 관련 자격증 반에서 와인소믈리에와 항공예약발권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졸업 후 공항이나 항공사 항공분야의 발권분야에서 일을 원하기 때문에 자격증취득은 필수이며 앞으로 몇 개의 분야에 대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글로벌호텔관광학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근종 교수 : 감사합니다.